다시 수경이를 그리며

김 효 선
경화여고 90년도 졸업

6월이구나.

3년 전, 네 육신이 슬프게 부서져 버린 날. 네 온기도, 네 모습도 떠나 버리고 그 대신 문과대 뒷건물 바닥에는 검붉게 말라 버린 핏자욱만이 남아 있었다.

묵주를 놓고 어슬프게 꿇어 앉아 한 번도 불러 본 적 없는 '성모 마리아'를 너 대신 부르며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 모순 투성이 땅에서 스스로를 등지고 차갑게 식어 버린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이 가엾은 목숨에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린 목숨을 위해 절실하게 울 수 있을까요?"

네 곁에서 너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죽음 앞에 부끄러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고 분한 통곡을 하던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흐르고 있구나.

해마다 아까운 죽음들이 우리 귀에 들려왔고, 그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막막한 힘의 존재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비관해 온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패배자라 손가락질 했고, 어떤 이들은 정신분열에 과격한 성격파탄자라고 욕도 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이 그토록 많은 말을 해댔을 때 어둡고 외로운 옥상 위에서 죽음에 대해 괴로와했을 게다. 경산으로 오는 버스 속에서 많은 얼굴과 시간을 떠올리며 네 죽음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내린 결론이란 데 담담해 했을는지도 모른다.

학교가 더 이상 학교답지 못한 채, 촌지 걱정에 마음 편히 선생님을 찾아 뵐 수 없으시다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시험 때마다 위장병이 재발한다는 짝을 보며, 국어책을 미분공식처럼 암기해야 하는 현실을 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정작 네 옆에 함께 있어 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 관도 없이 어딘가에 뿌려진 널 생각하며 이제야 후회가 된다. 아니 가슴에 멍이 든다. 네 고민을 들어주기에 앞서, 네가 짊어진 짐을 남들처럼 묵묵히 참아내라고만 했던 날들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며 원망했던 날들이.

작년 네 추모제에서는 울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었지. 죽은 네 모습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며. 그러나, 네 영정 앞에 향이 피워지고 조화가 한 송이, 한 송이 쌓여갈 때 이성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

'왜 좀 더 참지 못했니. 남들은 다 잘 지내고 있잖아.'라는 원망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러면서 겹쳐지는 교문 밖의 낯익은 얼굴들—선생님들, 비오던 날들의 운동장 시위, 끊이지를 않던 선생님들의 체벌, 체육시간 수없이 되풀이 했던 오리걸음……,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뺨을 맞고 있는 네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아, 이 눈물이 단지 너를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눈물이 네 죽음 속에 함께 죽어 있는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한 피눈물이라는 걸 알았다.

오늘도 TV에서는 고액과외와 부정입학, 촌지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답안지를 당당히 고치는 입시장학관의 얼굴도 보인다. 전교조 탈퇴서와 복직보장을 흥정하는 최고 권력자의 얼굴도 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완강하게 교문을 걸어 잠그고 막아선 얼굴들도 보인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겨져 있는 몫이 있을 게다.

이 땅의 푸른 생명들이 누렇게 말라 죽는 대신 교육 모순의 씩은 뿌리를 밑둥까지 뽑아내야 할 때다. 너에게 죄스럽고 부끄러워 했던 우리에게 네 죽음은 이제 우리의 몫을 재촉하는 것 같다. 89년 5월에 있었던 참교육의 함성이 낡은 기억 속의 영웅담이 아니라, 새롭게 조직되고 터져야 할 봇물이라는 것을.

사랑만큼이나 큰 분노로 일어설 때입니다

김 정 성
경화여고 92년 졸업

청소년 도서원 재정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에서 잔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물론 믿지 않았다. 수경이 언니가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과 이 선배가(그때 그애기를 전해준) 날 놀리나? '사람 놀래켜도 정도껏 하지' 하는 생각도 했다. 부랴부랴 친구랑 영대 영안실로 가는 버스 속에서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직접가서 아닌 걸 확인해야지.' 속으로 맘 먹었다. 어두운 길 돌부리에 턱턱 갈길을 막히면서 영안실에 도착해서도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고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대로 확인이나 하는 것이라 억지로 생각하면서 결국 영안실에 들어갔었다.

첫번째 맞닥뜨린 곳에서 웬 아주머니가 나와서 "학생 때문에 왔나보지? 그 학생은 반대편인데 하셨다. 언니가 누워 있는 방 안엔 들어갈 엄두도 못내고 '고 김수경' 팻말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소리가 잠길 때까지 울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들었다. 벌써 쓰러진 3학년 언니도 몇 명 있고 모두들 눈이 벌개서 얘기할 엄두도 못내고 멍하니 천장만 보고 그렇게 몇십 분을 보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몇 명 와서 힐끔힐끔 우리쪽을 쳐다보고 저녁은 먹었냐며 전에 없이 자상스레 얘길 건네도 우리들의 적대감을 수그러뜨리진 못했다. 이전 수업시간엔 눈길만 줘도 괜스레 겁이나 집어 먹은 우리지만.

밤은 깊어가고 영안실 가득한 향내음은 결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솟게 하는 것 같았다. 어두운 영대

앞에서 학교측과 장학사, 사복경찰들이 한 무더기를 이뤄 뭔가 분주히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 몇이랑 해직 선생님들이 모여서 넋을 놓고 멍하니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조차 우리들은 행여나 들킬까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뒤집어써야만 했다.

늦게서야 자보랑 유인물 준비에 들어가기로 얘기되고 영안실에 있었던 우리들이랑 실장들 중심으로 연락 되는 대로 모여서 자취하는 한 언니집으로 몰려갔다.

다음날 임시 대의원 소집건이랑 학교측과의 협상내용 —추모제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 분향소 설치, 리본착용,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허가, 서진교 교사 퇴진, 학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을 작성하고 대자보 작성과 총학생회 명의의 유인물 작성에 들어갔다. 하룻밤을 꼬박 새고 학교에 가서 맨 먼저 한 것은 대의원회 소집이었다.

소식이 전해지고 학교 전체는 완전히 울음바다였다.

교감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각급 주임교사들이 몰려와서 일방적으로 대의원들을 해산시키고 난 뒤 3학년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한 언니는 슬픔을 못 이겨 창문에 손을 박아 손목 부근에 피가 흘렀다. 2학년 대의원이었던 우리들은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 지 갈팡질팡이었다.

친구들에게 검은리본 착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분향소 설치도 알리고—분향소는 당일 수업시간 중 철거됐다.— 3학년을 중심으로 언니 장례식에 참석해서 영구차가 교내에 들어올 것을 확답 받고, 3학년 전원과 2학년은 대의원만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학교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고, 마침내 언니의 영구차가 학교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였다. 햇볕이 참 뜨거웠다. 침묵을 거부하는 빛, 굴종을 거부하는 빛, 왜곡을 거부하는 몸짓이었다.

중학교 교문을 들어서던 언니를 실은 영구차가 학교를 찬찬히 둘러볼 새도 없이 게눈 감추 듯 다시 교문을 빠져나가 버리고 잠겨진 교문을 향해 모두들 넋이 빠져라 통곡하고, 냉담한 빛으로 이를 바라보며 선생들은 헛기침만 삼키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퍽퍽 쓰러지는 언니들도 있었고 눈물은 말라 버리

고 퉁퉁 부은 눈으로 엉엉 소리만 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학생회장에게 보내진 유서가 낭독되고—나는 아직도 그때의 숨막힘을 잊지 못한다—30분 가량의 약식 추모제와 자체토론회가 벌어졌다.

그렇게 허망하니, 손 쓸 새도 없이 언니를 보내 버리고 언니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 재학생 사이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교내 대자보 작업과 타학교에 대한 선전작업 등을 주로 맡게 되었다. 학교측의 흑색선전과 그 무서운 일을 조용하게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점점 학생들을 삼켜내고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근 6시간을 감금당해서 대자보의 출처에 대해 추궁당하고 학생회 임원이 두셋만 모여도 영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일부 선생들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모아 내지 못하게 되었다.

91년 2월 졸업식장에서 학생회장이 답사 후에 수경이 언니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동창회장상 등을 거부한 때도 생각난다. 그때도 모두들 울었다.

내가 기억하는 수경이 언니는 곧잘 실내화를 끄실고 버스를 기다리며 하드를 빨곤 했다. 자기 무게만큼이나 되는 커다란 스포츠백을 매고서 말이다. 명은이랑('91 학생회장) 큰소리 내며 떠들던 모습도 기억한다. 또, 그때 학생회 유세를 하던 날, 유세용 원고를 보면서 마냥 벌벌 떨고 가슴이 쿵탁거리고 있던 나에게 "잘해라."하고는 은남이언니('90 학생회장) 찬조연설을 차분하게 하고 내려와서 씨익 웃던 얼굴도 기억난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기억이 그리 오래도록 우리를 잡아두진 못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기억에 매달려 슬퍼하고 힘 빠져하기만 한다면 언니는 그것을 결코 원하진 않을 것이다. 강하게 부정 할 것이다.

남은 우리는 언니가 그토록 바랬던, 이젠 우리 몫으로 남겨진 살 만한 학교 만들기를 힘차게 해나가야 한다.

어려운 시기
언니의 투신이,
또 광보의 투신이,
작년 오월 철수의 분신이,
우리에게 믿고 남긴 그 중요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힘이 되주며 힘차게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한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대로 수경이를 보낼 수 없다."며 절규하던 위령제 때 모두의 눈물을 타고 퍼져나가던 노래 한 소절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이제 우리 그들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큰 분노로 일어설 때다.

단편소설

무서운 외출(外出)

丁萬鎭
전 영신고 교사 · 소설가

땡- 때앵- 때애앵-

세 번 연속되는 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잡고 있던 먼지떨이며 봉걸레들을 청소도구함으로 던져 넣는다. 청소시간 종료와 7교시 시작 10분 전을 동시에 알려 주는 그 종소리의 여운 속으로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마치 달맞이꽃이 피어나는 듯 활짝 터져 오른다.

"이제 두 시간만 더하면 집에 간다!"

언제나 꾸밈 없이 말을 토해 버리는 은미의 목소리가 오늘도 맨 먼저, 가장 큰 울림으로 교실 안을 흔든다. 자신의 말을 받아 몇 아이들이 입을 삐쭉대는 줄도 모르는 채, 은미는 그저 즐거운 표정이다.

—늬네 집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과외 받는다고 자율학습 안 해도 되니 부잣집 딸이 좋기는 좋구나!

—새마을 어머니회 회장의 고명 따님이 컴컴한 밤 늦게까지 교실에 퍼질러 앉았을 수야 없지, 아무렴!

수경은 아이들의 야유 반 질투 반을 눈을 감은 채로 듣는다. 하지만, 아이들이 은미를 헐뜯는 짓을 가로막고 나설 생각까지는 없다. 아이들의 속삭임이 저처럼 낮은 목소리로 진행되는 것도 다 은미 개인에게는 아무런 악감정이 없다는 표시임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옆 자리의 윤주는 아까부터 내내 잠이 든 채다. 청소시간엔

햇살이 따스한 바깥 복도의 유리창 가에 기대어 있다가, 이윽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는 곱게 잠이 들어 있다. 심장병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부터 '뛰지도 말고, 가능하다면 휴학을 해서 한 일 년 쉬는 게 좋을 것'이란 판정을 받았지만, 고집을 피워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다. 그래서, 윤주는 청소 당번 등에는 늘 제외된다.

—집에서 쉬나, 학교에 가서 공부 안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쉬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고집을 피워 휴학을 모면했노라던 아이, 어떤 애한테도 절대 나쁜 소리 않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아이, 핼쓱한 얼굴이지만 늘 사근사근 웃는 표정인 아이, 윤주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수경은 마음 속으로 그 애의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한다.

그 때, 옆 반에서 건너온 명희가 살며시 그녀의 옆으로 다가선다. 명희는 전교 학생회장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수경의 얼굴빛을 살피던 회장이 은근한 음성으로 말을 건넨다.

"…… 괜찮니?"

수경은 명희의 그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안다. 수경은 작게 웃으면서 회장의 눈을 마주 본다.

이렇게 틈시간을 내어 자신의 교실로 찾아와 따뜻한 시선을 보내 주는 회장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고마와, 걱정해 줘서……."

"고맙긴! 다들 네 걱정을 하고 있단다. 벌써 일 주일씩이나 넌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잖니?"

수경은 의도적으로라도 환하게 웃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난,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늬들 보기엔 내가 그렇게나 우울해 보였어? 미안해서 어쩌지, 걱정들 끼쳐서?"

수경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낸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싶도록 그녀는 빠르게 입을 놀린다. 명희가 깜짝 놀란 듯이 수경의 어깨를 붙든다.

"무슨 꼬투리를 잡히려고 그래? 학과가 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니? 교문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학과에게 발각되면 아마 넌 무사하지 못할거야!"

순간적으로 수경은 학생과장의 얼굴을 머리 속에 떠올린다.

항상 빨겋게 충혈된 상태인, 얼굴로부터 앞으로 불툭 튀어나온 학과의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몸서리치면서 기억한다.

"왜? 왜 나만 교문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수경이 회장에게 대든다.

"그걸…… 몰라서 …… 묻니?"

그러나, 수경이의 도전적인 말투는 회장의 부드러움에 녹아 이내 수그러진다. 회장의 침착한 음성이 수경의 마음을 가라앉혀 버린 까닭이다.

이윽고, 둘은 서로를 감싸안듯이 마주 본다. 눈물 내음이 서린 듯한 명희의 눈동자를 대하면서 수경은 문득 할 말을 잊는다.

—그걸 몰라서 묻니?

'왜 모르겠니? 어떻게든 나를 옭아매려고 학생과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실을, 내가 왜, 왜 모르겠니?'

수경은 고함을 지르고만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다.

원래, 학교 측은 청소 시간 등의 외출을 묵인해 왔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주인인 교내 매점의 운영 방식에 시달리다 못한 학생들이 몇 차례나 시위를 벌인 결과였다.

"아줌마아-!"

아이들은 이사장의 며느리를 아줌마라 불렀다. 그러면, 젊은 여주인은 찢어진 눈을 치켜 뜨고서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여고생들보다 대여섯 살 위긴 해도 학생들과 별반 차이 없이 뵈는 외모만큼이나 그녀는 성깔이 살아 있었다.

"내가 네 아줌마니? 그건 그렇고, 왜? 불러, 바쁜데?"

" 아이, 참!"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아이들도 아니었다. 사립대학 회화과를 나와 이사장네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집에서 놀고 지내니 심심하지?"

"…… ? "

"학교에 나와서 매점을 맡아 보도록 하여라. 남은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리듯 엉뚱한 직책을 떠안긴 시아버지의 엄명에 할 수 없이 동전을 주무르게 된 그녀의 심정이야

애시당초 아이들이 헤아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왜 잔돈 안 내 줘요?"

"잔도온?"

매점 여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 10원 20원 받아서 어디 쓸데나 있니, 요즘? 지금 봐라,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10원짜리 하나하나 내 주다가는 어떻게 장사를 해먹겠니? 다른 애들도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하지 않겠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사람이!"

그뿐이 아니었다. 하다 못해 볼펜 하나까지도 교문 밖의 가게들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지는 않았다. 빵마저도 어디서 구해왔는지 상표조차 붙지 않은 걸 비싼 값에 팔아댔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는 오히려 수도물보다도 더 묽었다. 수도물은 오염이 되어서 뭐가 들어도 들었다는데 이건 맹물보다도 더 멀겋잖아. 아이들은 그렇게 떠들어댔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냥 물러서기가 일쑤였다. 뒤로 돌아서서 들 쑥덜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해를 계속 그럴 수는 없었다.

마침내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였다. 매점 시설을 개선하라고 웅성댔다. 기자가 쫓아와 사진을 펑펑 찍어댔다.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이 교문 밖 출입에 대한 학교 측의 묵인이었다. 교내 시설은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2층 계단 아래의 빈 구석을 뜯어고쳐 만든 매점이라 확장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탓이었다.

자연, 청소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이면 아이들은 교문밖으로 나갔다. 김밥을 사먹으로 가기도 하고, 문방구를 구입하러 나가기도 하였다. 물론, 학과가 종종 교문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체벌을 가한다거나 혹은 말로라도 겁을 주었다가는 아이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날까 저어해서였다.

하지만, 학과가 몽둥이를 꼬나들고 교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의 상당수는 교문 밖 출입을 포기했다. 학과의 핏빛 눈자위와 굵다란 몽둥이에 저절로 주눅이 들어 아이들은 스스로 학교 밖으로의 외출을 중지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학과가 거기 서 있는 이유 같기도 했다.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아이들은 결국 매점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과가 교문에 서 있는 것까지 학생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다. 수위가 없으니 나라도 치한의 침입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엔 할 말이 없었다. 술취한 남자가 3학년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잡힌 적도 있고, 멀쩡한 청년이 동생 찾으러 왔다며 야간 자습 하는 교실 안을 기웃거리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나 파출소로 인계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처음엔 드나드는 아이들을 지켜보기만 하던 학생과장이 점차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5명의 교사들이 전교조로 해직된 그 다음 날부터였다. 너 머리가 이상한데 볶은 것 아냐? 운동화가 빨간데 그건 금지야! 내일 당장 갈아 신지 않으면 교칙에 의거 처벌하겠다!

—전교조 선생님들 학교서 나가고 나니까 대뜸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공공연히 학생회까지 탄압하려고 든다니까! 선생님들 해직되고 나서 2학기 개학을 한 날에, 회장을 불러서 학과가 뭐랬는 줄 아니?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부에 전념을 해야하지 않을까? 내년엔 3학년인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너 학생회네 뭐네 까불어대다가 대학에 똑 떨어져 봐라! 그렇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알어? 너만 바보되는 거야! 너만 손해라니깐!

수경은 그 생각을 하면서 회장에게 농담을 던져 본다. 일부러, 자기에게 돌아온 화제를 은근슬쩍 돌려 버리려고. 수경은 딴 얘기를 꺼낸다.

"너 이제 거의 바보 다 되었잖니? 이번 모의고사 성적도 별볼일 없다고들 하던데?"

하지만, 명희는 말려들지를 않는다.

"학과가 부르지 않던?"

수경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 학과 쪽에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감감 무소식이었던 것이다. 쉬는 시간마다 지도실로 호출하여 미주알고주알 캐물으며 사람을 괴롭히는게 취미인 학과이건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는 체도 않는 것이

었다.

"이상하다? 어째서 그 거머리 같은 학과가 널 가만 둘까?"

수경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말이 있을 턱이 없다.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야! 그렇게 크게 잡혔는데 학교하고 경찰이 서로 연락을 않았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걸까?'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희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면서, 수경은 잠깐 기억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지난 일요일이었다.

그 때, 수경은 시민공원 솔밭 한 구석에 있었다. 그 솔밭의 한복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자리도 아닌, 바로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석'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수경은 지금 학교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감시 받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거기에는 수경이만 있은 것은 아니었다. 시내 몇몇 고등학교 학생회의 간부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제법 이름이 난 세 고교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셋은 학교측에 의해 무기정학 처분을 당한, 그러나 그 징계를 거부하며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찾아 들어가서는 두 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악발이 같은 학생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셋이 유명해진 것이 단식 농성 때문은 아니었다. 징계가 원인 무효라며 갖가지 재야 단체들이 소속 학교로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때문도 아니었다. 그 부모가 무기정학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대서 그렇게 알려진 바도 역시 아니었다. 제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그 학교 해직교사들이 교문 바로 앞에다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대서도 아니었다.

그 셋을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오히려 학교 측이었다. 징계의 이유가 '재미있다'하여 학생들의 이름은 세상에 드날려진 것이었다. 그 학교는 해직교사가 다섯 명 있는 인문고교였다. 졸업식 날 그 다섯 교사들은 제자들의 사회 진출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나 학교 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여 제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학부모들이 번거로워 하지나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문 밖에서 기다렸다. 제자들이 나오면 격려의 악수나 나눌 예정이었다.

그런데, 졸업을 하는 3학년 일부가 몇 달 전의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며 홀연 사은회를 계획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졸업식이 끝난 뒤

교실로 선생님들을 모셔와 큰절이라도 한 번 올리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마음은 학교 쪽에 의해 즉각 난도질 당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칠게 항의하지 않고 대신 그 사은회를 학교 밖에서 치르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인근에 대학교가 있으니, 그 곳의 강의실로 가서 약식 사은회나마 간단히 갖기로 한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그 소식을 접한 2학년 학생 몇 명이 자리에 함께 끼게 되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이 대학 정문에까지 따라붙어 참가 학생의 신원을 조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학교 측은 그 사은회에 참가한 2학년 학생들 중 신원이 확인된 세 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징계 죄목은 '불법 집회 참가'와 '학교 명예 훼손'이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불법이니까, 전교조로 해직된 교사들과 만나 사은회를 가진 것은 '불법 집회'라는 논리였다. 또, 그 사은회 개최가 일간신문 기자에 의해 '오늘의 美談' 기사로 보도 되었으니 '학교 명예 훼손'이라는 이야기였다. 3학년은 이미 졸업했으니 우리 알 바가 아니지만, 2학년들은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셋은 신학년도 학생회의 주요 간부로 내정된 학생들이었다.

시내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은 그 중징계가 학생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학교 측의 음모라고 단정했다. 그러므로, 신학년도에 본격적으로 가해질 학생회 활동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관해 지혜를 모아 보자며 시민공원에 모인 것이었다. '불법집회 참가'와 '학교 명예 훼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붙여 학생회 간부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때린 것을 신학년도에 펼쳐질 직선제 학생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선생님들이 상당수 해직된 뒤라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탄압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낀 때문이었다.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해 보아?"

그러나, 그 의견은 대뜸 반대에 부딪혔다.

"안돼, 우리는 전대협처럼 조직체가 아니잖아?"

여학생은 둘 뿐이었다. 명희는 집에 일이 있어서 마침 그날 못 오고, 총무부장인 수경이 대신 참석한 상태였다. 수경과 다른 여학생은 벤취에 나란히 앉은 채였고, 자리도 없고 해서 남학생들은 주위에 비잉 둘러 서 있었다.

"민주교육을 열망하는 고교생 일동, 이런 명칭으로 하면 안될까?"

맨 처음 의견을 낸 남학생이 재차 발언을 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 성명서를 낸들 누가 알아 주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전대협같이 조직의 힘을 지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기명으로 그런 문건하나 발표하는 걸로야 누가 코방귀라도 뀌겠느냐는 판단들이었다.

"이게 어떨까……?"

수경이 한참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모두들 수경을 바라보았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설명하고, 왜 학교 측이 그처럼 얼토당토않은 죄목을 붙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가면서까지도 세 학생을 징계하려고 무리를 하는지 분석한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마다 애들에게 배포하면 어떨까? 인쇄를 하면 의심을 받으니까 글씨로 써서 만들고 내용도 학교별로 따로 작성하고……."

여럿이 찬성을 했다.

"그게 좋겠어……. 사은회가 있은 지 벌써 달반이나 되었고, 징계 발표가 난 것도 4주나 지났는데다가, 다음 일요일에 있는 범시민 규탄대회엔 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직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은 실정 아니니? 우선 애들이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범시민 구탄 대회에도 올 거고, 나중에 비슷한 일이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가 되니까."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때였다.

"뭐야, 너희들?"

경찰이었다. 사복 차림의 형사 두 명과 백골단 옷을 입은 예닐곱 전경들이었다. 수경을 비롯한 고교생들은 '아차!' 싶은 당혹감에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다. 틀림없이 학교로 통보가 될 터이고, 이게 왠 횡재냐 싶은 학생과장은 그 꼬투리를 물고 늘어져 학생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법석을 떨어댈 것인데…… 싶어, 조심을 하지 않은 자신들의 부주의를 탓하고 또 탓하는 것이었다.

그런 심정이었으니, 행동들이 엉거주춤했을 것이야 뻔한 일이었다. 그러자, 이상하다고 판단했던지 갑자기 백골단들이 주위를 빼앵 둘러싸면서 외쳤다.

"꼼짝마랏!"

학생들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백골단들의 손엔 총이 쥐어져 있었다. 형사가 앞으로 나서면서 다시 고함을 쳤다.

"이 새끼들 봐아라아? 인신매매단이 활개를 쳐대니, 이건 숫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까지 벌건 대낮에 여학생을 납치하려 들어!"

그제서야 학생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챘다. 백골단의 손에 들린 것은 가스총이었고, 자신들이 학생회와 관련되어 미행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었다. 자신들의 모임이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경찰로부터 추적을 받은 것은 아님을 대강 짐작한 것이었다. 그러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우, 우리는…… 고, 고등학생들인데요……."

그러나 형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짜식들 봐라! 숲 속에서 여학생 둘을 복판에 앉혀 놓고, 사내놈들은 비잉빙 둘러싸고 서있었는데, 뭐,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요?"

그 형사가 채 말을 마치지기도 전에 다른 잠바가 손바닥으로 한 남학생의 목덜미를 휘갈겨쳤다.

"이 새끼들이 우릴 바지저고리로 취급하네?"

결국 근처 파출소로 몽땅 끌려갔다.

인신매매단이 아님을 인정받은 것은 가지고 있던 가방들을 수색당한 뒤에였다. 그러나, 한 학생의 가방 속에서 전교조 홍보물이 나오고, 세 학생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재야단체의 성명서가 발견되자, 학생들은 오히려 곤란해졌다.

눈알을 빙빙 굴리면서 학생들을 쳐다보다가,

"이거 뜻밖의 대어를 낚았잖아?"

하며 씨익 웃는 형사의 얼굴을 대하자, 수경은 문득 어릴 때 본 만화책의 흡혈박쥐가 연상되어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다가, 흡혈박쥐는 홱 학생과장의 시뻘건 눈알로 돌변을 했었다.

"왜 학과가 널 부르지 않을까? 모를 리는 없을 건데…… 무슨 꿍꿍이 속일까?"

명희가 다시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손을 꼬옥 부여잡으면서 회장이 '힘내자, 힘!' 하고 수경에게 격려를 보낸다.

이윽고, 명희는 자기 교실로 돌아간다. 책상에 엎드려 있던 윤주가 몸을 일으키며 말을 건네온다.

"같이 밖에 좀 나가 줄래, 수경아?"

윤주는 원래가 조용조용한 아이다. 외모도 그처럼 차분하게 느껴지는 인상이지만, 아프니까 더 그럴 것이라고 수경은 믿는다. 그렇다고, 외출을 나가자는 윤주의 말에 수경이 놀랄 이유는 없다. 외출은 이미 학교 안의 모든 아이들에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떨어졌거든……"

수경은 윤주의 손을 잡는다. 윤주는 잽싸게 일어나 수경의 팔짱을 낀다. 감기 기운까지 겹쳤으니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시라며 어머니가 넣어 준 보온물통의 식수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학교 안에 따뜻한 물이 없지 않니? 커피 자판기뿐이어서 약을 그런 걸로 먹을 수도 없고……."

둘은 나란히 교문을 향해 걷는다. 교문은 드나드는 아이들로 북새통이다. 학과가 지키고 선 것 같지는 않다.

어느샌가 둘은 교문에 당도한다. 교문 사이를 통과하면서 수경은 학생과장의 묘한 모습을 떠올린다. 학생들 중에선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수경 자신만이 놀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던 학생과장의 낯선 면모를 떠올린다. '불법 집회 참가'와 '학교 명예 훼손' 죄목으로 세 학생을 무기정학에 처한 그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 대학교 교문에서 본 모습이었다.

그 날 수경이 대학 입구에 갔을 때, 대학으로 들어가는 도로 쪽엔 이미 전경 버스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경찰 백차도 왱왱

소리를 내지르면서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백골단의 학내 진입을 대비하는 대학생들 역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서 교문에 삼엄하게 포진해 있었다.

몸이 싸늘하게 굳어오는 기분이었지만, 수경은 그래도 대학 쪽으로 용감하게 전진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세 학생들과도 서로 아는 처지인데다가, 전교조로 해직된 교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중징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내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정도는 최소한으로 실천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린 결과였다.

그러나, 대학 정문 입구에서부터 눈을 찌르며 덤벼오는 최루탄 독취를 수경은 견뎌낼 수 없었다. 대학 구내에 들어가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따갑게 온 얼굴이 매워지는데, 도무지 감당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수경은 약국으로 쫓아 들어갔다. 마스크를 샀다. 말이 마스크지 그것은 그대로 수건이었다. 귀를 둘러 입과 코를 가리고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도통 얼굴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싶을 지경으로 그것은 크낙했다.

'아무도 날 알아볼 수 없겠다!'

수경은 빠릿하게 걸어 대학 정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 때, 수경의 앞에 떡 버티고 선 사람이 바로 학생과장이었다.

"어디 가지, 채 수경!"

수경은 질려 버리고 말았다. 정학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위의 직감이 와서가 아니었다. 집회 장소에서 마주쳤으니 앞으로 얼마나 이 찰거머리 같은 학생과장에게 시달리게 될까! 그 예감에 그만 얼굴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리 와, 어서! 이런 불법 집회에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씩이나 교육적으로 설명을 했나? 그런데도 여길 나타나? 이걸 그냐앙!"

잔뜩 목에 힘을 준 학과의 음성이 커다랗게 귓속을 파고 들었다. 수경은 오도가도 못하는 채로 그만 그 자리에 멈춰 버렸다.

"빨리 오지 못해? 얻어 터지고 싶어? 뛰어, 빨릿!"

학과의 고함이 우렁우렁하게 다시 터졌다. 그 소리에, 정문을 지키고 섰던 대학생들이 서너 명 이쪽으로 뛰어왔다.

쇠파이프를 움켜진 채로 남학생들이 학과를 둘러쌌다.

"뭐요, 당신?"

맨앞의 남학생이 눈을 부라렸다.

"아, 아무 것도…… 아, 아니오!"

학과의 입에선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수경은 얼핏 학과를 쳐다보았다. 학과는 두려움에 짓눌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알을 빙빙 돌리면서 학과는 대학생들의 눈치를 살펴대는 중이었다.

"당신! 교육청 관료지?"

대학생들이 반말로 윽박질렀다. 학과는 두 손을 허공에다가 휘두르면서 황급히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교육청, 아닙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다시 퍼부었다.

"그럼, 학교 교사지?"

대학생들은 수경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여학생 다니는 학교의 교사 아냐? 교감이나 학생과장, 맞지?"

학과는 더더욱 빠르게 손을 내저으면서 그것을 부인했다.

"아, 아닙니다! 시, 시민, 그렇소, 그저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시민!"

대학생이 눈에 힘을 모으면서 학과를 째려보았다.

뒤에 섰던 남학생이 몽둥이를 치켜들면서 앞으로 불쑥 나섰다.

"이게!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디서 그 따위 치사스러운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엉?"

당장 쇠파이프를 휘두르려는 기세로 대학생은 고함을 질러댔다. 갑자기 학과가 수경에게로 쫓아들었다. 그러면서 손을 꽉 움켜 잡았다.

"이, 이 학생한테, 무, 물어봐요! 내, 내가, 이 학생, 다, 다니는, 하, 학교의, 서, 선생인지!"

그러자, 대학생이 학과를 노려보면서 수경에게로 다가섰다.

"그래요오?"

학과의 팔이 바람 든 노인의 것마냥 너무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수경은 자신의 몸마저도 함께 흔들림을 느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수경은 자신의 마음이 폭풍 속에 선 버드나무처럼 휘청거림을 깨달아야 했다.

"어디 이 여학생한테 확인을 해 볼까요? 당신이 그저 지나가는 시민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탄압함으로써 상부에 잘 보여 출세를 하겠다는 형편 없는 꿈에 젖은 사이비 교육자인지를!"

학과의 간절한, 그러나 여전히 뻘건 눈동자가 수경을 향해 부들부들 떨어댔다. 수경은 잠시 망설였다. 백골단에 짓밟혀 얼굴이 깨진 대학생의 피투성이가 떠올랐다. 직격으로 퍼부어댄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연세대학교 이 한열의 죽음을 기억했다. 순간적으로, '광주'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나, 수경은 어쩔 수 없었다.

"난…… 처음 보는 아저씨예요."

수경은 고개를 돌리면서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 대답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손을 꼬옥 움켜잡았던 팔이 자신으로부터 톡 떨어져 나감을 수경은 느꼈다.

대학생들은 다시 교문으로 돌아갔다. 학과 역시 저 쪽으로 널름 사라져갔다. 수경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여간, 그 두 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도 학과는 수경을 결코 호출하지 않았다.

대학 집회에 참가하다가 정면으로 부닥쳤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엔 시민공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회 간부들과 떼거리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도, 학생과장은 쓰다달다 언급을 않는 것이었다.

—선생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광경을 들킨 게 부끄러워서?

우리한테 그렇게 당당히 큰소리를 쳐대다가 그런 꼴을 보였으니 그게 창피해서? 입만 벌리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이러는 건 다 교육자로서의 양심 때문이다!' 하고 떠들었었는데, "선생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했으니, 면목이 없기는 없을 거야.

그러나 수경은 고개를 가로젖는다. 대학 정문에서의 일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민공원 사건만 가지고 나를 달달 괴롭히면 되는데 뭣 때문에 학과가 그처럼 점잖게 가만 있겠어? 절대 그런 이유는 아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

윤주와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도 내내 수경은 그 생각이다.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아…… 생각에 빠진 수경은 계속 머리를 가로 젖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곰곰히 하니?"

윤주가 아이스크림을 불쑥 내민다.

"아, 아냐, 아무것도!"

수경은 자신이 당황해함을 느낀다.

아이스크림을 받아 든 채, 수경은 고개를 든다. 학교 담이 눈앞에 바라보인다. 이 문방구 건물과 학교 담이 붙어 있는 까닭이다. 문득, 수경은 뜯기다 말고 조금 남은 포스타 잔재를 발견한다. 이번 일요일에 열리는 '학생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시민 규탄대회' 포스타다. 누군가가 밤새 갖다붙였고, 학교 쪽에선 새벽같이 물칠을 하여 뜯어내느라 법석을 떤 흔적이어서, 수경은 쓴 웃음을 짓는다.

저길 가자고 하면 우리 학교에선 누구누구 갈까?

수경은 머리 속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주욱 꼽아 본다.

많이 참가를 해야할 텐데…… 그건 그렇고…… 학과는 이 명단이 얼마나 알고 싶을까? 그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을 사실대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학과는 당장에 '퇴학, 무기정학' 위협을 휘둘러서 학생회 활동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들 것인데…….

수경은 윤주를 바라본다. 그저 순진무구한 표정이다. 얘는 자유자재로 교문을 출입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 까닭조차도 얘는 과연 알고 있을까?

그러나, 교문으로 되돌아 온 수경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학과가 몽둥이를 꼬나든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 속이 싸느랗게 얼어 붙어면서 수경은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린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뇌리를 스친다.

아니나 다를까, 학과는 몽둥이를 흔들어 수경을 부른다. 그러나 수경은 학과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파랗게 죽은 윤주의 얼굴이 훨씬 더 걱정스러울 뿐이다.

수경은 침착해야지, 침착해야지 하고 마음을 달래며 천천히 앞으로 걷는다.

그러나, 수경을 기다리는 학과의 몽둥이는 저녁놀을 받아 한층 광기를 빛낸다. 학과의 뻘건 눈자위도 번들번들 아이쪽을 노려

보고 있다. 학과의 얼굴은 득의만면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수경은 학과의 웃음기 속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음모를 예감한다.
이제 문초가 시작되려나?
수경은 불안하다.
그러나, 수경은 앞을 향해 계속 걷는다.
한 발, 두 발…… 수경은 앞으로 나아간다.

—『한민족문학』 2집, 91년10월

콩트

어떤 소문

배 창 환
전 경화여중 교사 · 시인

김 선생은 아까부터 초조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정문에서 본 대학생들이 마음에 걸렸다. 문을 지키고 있는 그 학생들의 눈빛이나 손에 쥔 각목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오늘 저놈들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등줄기를 지나갔다. 학생들이 정문 앞 광장을 지나 길 건너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메가폰으로 무어라고 소리지르자 그들은 힐끔힐끔 뒤를 보면서 내리막길로 슬슬 쫓겨가고 있었다. 시교위 장학사와 시내 중고등학교 교감이거나 학생 주임들이었다. 저 아래 골목 어귀 버스 정류소에 학교 동료 교사들이, 쫓겨오는 사람들을 보며 몇 걸음씩 뒤로 물러서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교장은 오늘 아침 긴급직원회의를 열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있는 '김수경 위령제'에 학생들의 참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며 핏대를 세웠고 전교직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벽부터 장학사들이 교장실에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교무주임이 김 선생을 교장실 옆 남교사 휴게실로 은밀히 부른 것은 직원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김 선생은 교무가 무얼 시키려는지 금방 알아챘다.

교무가 교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야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교무로서는 이번 김수경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교장의 신임을 확고히 해 두고 싶을 것이었다. 경북의 작은 면단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를 시내 인문계 여고에 뽑아낸 것도 다 교무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포석이었다.

물론 교무의 신임을 받고 있는 선생이 자신만은 아니었다. 교무의 대학 후배들이 둘이나 더 있었고, 그들은 김 선생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이미 교무의 손발이 되어 있었다.

야외공연장은 봉쇄망을 뚫고 들어온 중고생들과 해직 교사, 그리고 주로 사대생인 듯한 대학생들로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김 선생은 겁 없는 중고생들이 저렇게 많다는 데 깜짝 놀랐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고, 침울하면서도 눈빛 하나만은 달아올라 비장한 느낌마저 주었다.

무대 앞면 꼭대기에서 삼각형의 빗면처럼 비스듬히 늘어뜨린 두 개의 현수막에는 '우리 아픈 가슴마다 살아오는 수경아' '참교육 민주 교정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검은 천에 흰 글씨로 씌어 있었고, 가운데 정면에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다.

김 선생은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그래야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을 지어서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 되고, 얼굴을 반 이상 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의 얼굴을 알고 있는 학교 해직 선생들과 각목을 들고 있던 대학생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어 학교 아이들을 찾아 보았다. 수백 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아는 아이들의 얼굴을 찾아내고 또 이름까지 연결시켜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만한 저지선을 뚫고 들어온 놈들은 해마다 있어 온 학교내의 시위를 만들어 내는 주동자급일 것이고, 그놈들을 잘 감시하면 학생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한 교무의 탁견에는 그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소리가 귓전을 파고 들었다.

"이봐요, 아저씨!"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음을 알았다.

세 명의 대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다가왔다. 검게 탄 얼굴에다 모두 팔뚝에 녹색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고, 눈은 삼켜버릴 듯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학교에서 보내서 왔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손수건은 입에서 떼지 않은 채로였다.

"당신도 인간이오? 제자가 죽었는데 위령제에 참가하는 아이들 이름 적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수경일 죽인 거야!"

김선생은 뭐라고 둘러대고 싶었으나 입이 얼어 붙었는지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때였다. 둘러선 학생들을 밀어젖히며 한 학생이 갑자기 다가와 그의 손을 덥썩 잡았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 선생님, 접니다. 중3 때 선생님반 실장했던 기준입니다."

김 선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제서야 다가온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왼손엔 몰아쥔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응, 기준이 알지, 자네도 여기 다니나?"

"네, 선생님, 사대 졸업반입니다. 대구 나오셨단 소문은 들었습니다만,……근데 오늘은 웬일로?……그러니까, 수경이 학교에?……"

"그래 가슴 아픈 일이다.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서……, 더구나 내가 가르치던 아인데……."

"그러니까 위령제에 오셨군요, 그럼 저리로 내려가시지요? ……"

"아니다, 너를 보니 나의 젊었을 때 생각이 난다. 그래, 젊을 땐 조국과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말아야지……, 열심히 해라."

악수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김 선생은 숲길을 빠져나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월요일, 학교 아이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퍼졌다. 토요일 위령제 행사장에서 이 학교 해직 교사와 대학생들이 이 학교 선생님들만을 골라서 닥치는 대로 후둘겨 팼다는 것이다. 김 선생이 월요일부터 목에 손바닥 만한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것이 곧 그 증거라는 것이었다.

—「전교조 신문」67호, 1991.3

경화에 살으리랏다

1. 살으리 살으리랏다
경화에 살으리랏다.
사랑이랑 진리랑 먹고
경화에 살으리랏다.

2. 떠나라 떠나라 폭력
타율학습 보충도 떠나
사랑의 학교 믿음의 학교
우리 같이 살아 봅시다.

3. 깨어라 깨어라 친구
헛된 진리, 왜곡된 역사
참자유, 참진리 알아서
우리 모두 인간됩시다.

노래 '가시리'의 개사곡이며, '89년 전교조 선생님에 대한 징계 반대 싸움 때 교내에서 불리워진 노래

제 3 부

마침내 저 들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경과보고
고 김수경 학생 투신 진상 보고
김수경 학생의 죽음이 던지는 충격과 의미
대구지역 고등학생 글 모음(Ⅰ)
대구지역 고등학생 글 모음(Ⅱ)

경과 보고

고 김수경 학생 특별대책위원회

김수경양이 다니던 경화여고(학교장 손남규)는 경암교육재단의 학교로 고질적인 사학재단의 비리와 학생들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에 참여해 왔고 그로 인하여 6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학교이다. 수경양은 우수한 성적과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생이었으며 2학년 때는 학급의 실장을 맡아 보았고 3학년이 되어서는 학생회의 총무로 일하였다.

수경양은 작년, 최진열 선생님이 해직될 위기에 처하자 학급의 대의원으로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그 후에는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학교측에 찍혀 많은 시달림을 당해왔다. 자율적인 학생활동이 사사건건 탄압당하고 일상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으며 노골적으로 "빨갱이"라고 욕을 들어온 수경양은 학생회장에게 "학생회장이 좋긴 좋다. 그래도 너는 나만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학교측의 일방적인 탄압과 폭언, 폭력에 대한 울분이 누적된 상태에서 지난 6월 5일 청소시간인 5시경 친구 소연양과 함께 교문 앞 문구사에 나갔다가 들어오던 중 체육교사(서진교 교사)에게 붙들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모욕적인 구타를 당하였다. 이 결과 평소 몸이 약한 소연양은 약 30분간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화여고는 평상시에 학생들이 청소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외출을 해왔고 실제로 두 학생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문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유독 두 학생에게만 비인간적인 처벌이 가해진 것이다. 전교조 교사에 호의적이었던,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에 대한

경화여고의 상시적 탄압을 보여 주는 한 사건이었다.

보충수업 1시간을 빼먹고 매를 맞은 수경양은 교실로 돌아가 학생회장(차은남)에게 편지를 써 짝에게 주며 한 시간 후에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학교를 나섰다.

1시간 후에 편지를 전해 받은 학생회장은 "학교에 안 올 것 같다. 과연 우리 학교는 다닐 곳이 못된다는 걸 느꼈고…… 내 죽음이 왜곡되지나 않았음 좋겠다."라는 편지 내용을 보고 심상치 않게 여겨 담임에게 알리고 집에 전화를 했으나 수경양은 귀가하지 않아 작년 담임인 최교사 등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찾아 헤매었다.

학교를 나선 수경양은 그 길로 경산 영남대 캠퍼스로 갔으며, 담임 최진열 교사에게 유서 형식의 편지를 써 보낸 후 9시~11시 경 인문관 4층에서 투신하였다. 11시 20분 경 학교 경비가 시신을 발견하여 영남대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6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영남대 영안실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과 이 학교 해직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저녁에는 시교위 장학사들과 사복형사들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왜곡시키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진행되었다.(수경이의 유서는 이 때 친척인 모 경찰관이 보관하고 있었다.)

6월 7일(목) 장례식 날 오전 7시 30분~8시 30분, 학생들 경화여고 대의원회의 소집하여 전교생 검은 리본 패용, 분향소 설치 및 진상규명, 폭력교사 퇴진, 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하려 했으나 학교측에서 이를 제지하였으며, 대신 10시경 영구차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하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간단한 추모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 전원 검은 리본을 패용한 상태에서 50여 명의 학생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영안실로 모였다.

이날 학부모는 일간신문의 잘못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경이의 유서를 공개했다.(마치 성적비관 자살인 듯이 보도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또한 신문방송들은 학생활동

에 대한 탄압, 체육교사 서진교의 비인간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수경양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회장에게 남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장례 절차는 학교측의 입장을 좇아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신속히 진행되었으나 수경양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기다리는 학교에 꼭 가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부모가 허락하여 오후 2시경 영구차가 경화여고로 출발하였다. 영구차는 수경양의 추모제를 지내지 않고 후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문을 빠져나 와 버렸고 학생들은 "수경이를 살려내라."고 울부짖으며 뒤를 좇았으나 학교측은 교문을 닫아 버렸다. 영구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 15명 정도가 영구차 앞에 드러누워 추모제를 지내고 가야한다고 호소했으나 교사 등이 학생들을 강제로 들어내고 영구차는 화장터로 향하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까지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서 낭독, 추모시 낭독, 교가 제창 등 약식 추모제를 갖고, 학교 담에 수경이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6월 8일(금) 학교 곳곳에 대자보 붙었으나 8시경 학생주임이 소거해 갔다. 아침 등교길에 경화여중고 해직교사들 명의의 성명서를 학생들과 주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오전 10시 20분에서 11시 10분까지 추모식을 한다며 강당에서 조회를 가졌으며 거기서 서 교사가 20여분 동안 자신을 변호하면서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어 사건 당일 수경이와 함께 체벌을 받았던 홍소연의 증언(글)을 실장이 약 7분간 읽었는데, 거기서 홍소연 학생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하였다. 그 중에 "……교무수첩으로 맞고 난 뒤 씻고 오니까 수경이가 울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같이 울고 난 뒤 어지러워 쓰러졌으며, 30분간 음악실에서 실신하였다.(1.2학년 하교 시간이었음.) 담임과 수경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으며, 담임과 수경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가정방문 때나 진학지도실에서 상담할 때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전교조 관련 얘기를 들었고, 평소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수경이의 말을 들었다. 가끔 자기가 죽으면 흰국화, 노란국화 섞어서 사 오라고 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담임인 권 교사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하교길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알리는 글」 배포하였다.

6월 9일(토) 수경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자는 대자보가 붙었다. 또 곳곳에 붙은 소자보를 통해 당일 위령제가 경북대학교에서 있을 것을 공고하였다. 오전 11시 20분에서 1시 10분까지 1,2학년 강당조회를 하였으며, 위령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후 4시 30분에서 7시까지 경북대 야외공연장에서 전교조 대구지부 주최로 「고 김수경학생 위령제」를 가졌는데, 경화여고 등 시내 중·고생, 현직·해직교사 600여 명이 모였으며(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은 5시가 훨씬 넘어서야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도착할 수 있었다.) 해직교사, 동문, 친구, 후배들이 추모사를 할 때마다 식장이 울음바다로 되었다. 위령제는 추모식과 교내행진, 화관식(火棺式)으로 진행되었으며, 위령제가 끝날 때까지 장학사와 시내 각 학교, 교장, 교감, 학생주임 등이 학교 밖에 포진하여 학생들의 출입을 막았고 경화여고에서는 교사들까지 동원하였다.

6월 11일(월) 오전 9시 학생들,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위령제가 열렸음을 교내에 알렸다. 분향소는 1교시 수업 중에 학교 당국에 의해 철거되었고, 일부 학교 측 교사들 중에는 위령제 당시 대학생들에게 맞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함으로써 해직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6월 12일(화) 대자보가 계속 붙었으며, 졸업생들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거기서 「선후배 만남의 자리」가 있을 것임을 공고하였다. 오후 8시 경에 학원가에도 김수경의 죽음과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타 학교 학생들도 「대구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가두에서 핸드마이크로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다른 시내 고교에서도 자보가 붙음.

6월 16일(토) 오후 5시 30분에서 9시까지 지역 내 7개 대학

경화민주동문회에서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대구교대 여학생 휴게실에서)

6월 24일(일) 「전국교직원동조합」과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 김수경 학생 추모 대구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경북대학교 소강당에서 「고 김수경 추모 학생인권 유린 방지와 자주적 학생회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비가 내렸으나(원래는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 관계로 소강당으로 옮김) 전국에서 모인 해직교사, 학부모 대표, 대구지역 현·해직교사, 학부모, 학생(광주 등에서도 상당수의 고등학생들이 왔으며 추모사도 학생대표로 하기도 함)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으며, 행사가 끝난 후 북문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의 최루탄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시내 곳곳에 고 김수경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학생 인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결의대회 중에 「추모사업회」를 결성하여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을 결의하였다.

(1990. 6)

고 김수경 학생 투신 진상 보고

진상 조사단

고 김수경 학생 투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공동조사단(단장 박현서 한양대 교수)

1. 진상조사단의 활동

6월 12일 대구도착, 수경양의 편지, 일기, 조사, 친구 증언, 녹음 청취, 경화여고 해직교사 조사.

6월 13일 경화여고, 시교위, 영남대 병원 방문 기자회견(약 20명 참석).

2. 죽음의 원인

1) 계기- 수경양에 대한 학교측의 누적된 탄압과 직접적으로 서진교 교사의 폭언·폭행.

① 수경양이 죽기 직전, 전 담임인 최진열 교사에게 보낸 편지(유서)

"오늘 청소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교!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이 보였느니, 행동이 좋지 않느니, 그러다가 퇴학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곤 자신이 너무 했었다고-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확실히 전 학교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더러운 세상(죄송합니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걸려 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아무런 글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죽은 후 세상은 절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했노라고 그렇게 왜곡 되는 게 싫어서 였습니다."

② 수경양과 같이 서진교 교사에게 폭행 당해서 실신까지 했던 홍소연양의 얘기에 따르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두 사람

이 체육실에 풀려 나왔을 때, 소연양이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통스러워 하자,

"소연아, 왜 내가 그전부터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③ 학생회장 차은남양과 함께 학생회 활동의 중심이였던 총무부장 수경양에 대한 학교측의 탄압은, 수경양이 소위 '찍힌'인물이였던 것, 학생 회장 선거 '찬조연설'이 3학년 담임에게도 문제시 되었던 것, 또 유서에서 "은남아 학교 잘 이끌어라"고 마지막 당부를 한데서도 알 수 있다.

2) 구조적 원인- 현정권의 학생탄압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금년 들어 더욱 노골화된 군사 독재 정권의 학생탄압이다. 전교조와 대립하고 있는 정권은 교육현장을 전교조로부터 분리시켜, 장악하고자 했고, 1,600여 명의 교사를 해직시키는 등으로 교사들의 참교육 활동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교육 현장을 상당히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작년 전교조 사수 투쟁기에 보여주었듯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질 못했다. 학생들은 더욱 집요하게 참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졌고, 그것을 학생회 활동 등의 자치활동을 통해 대중화해 나가고자 했다.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정권은 그것을 초기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해 왔다.

그런데 이 탄압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자치활동 권리를 박탈하고 짓밟는 것이기에 일제시대 때보다 더한 비도덕성과 폭력성(비논리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 예결산 공개 요구(문일고 퇴학), 학생들만의 회의(벌교상고)를 개최했다고 학생들을 징계하고, 설문조사를 하거나(금당고, 대동고),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구타하고 심지어 전화줄로 목을 조르고 때려 입 안을 8바늘 꿰매게 하는 등으로 폭행했다. 또 4·19를 계승하자는 홍보물을 돌리고(구로고, 고려고) 정부에 의해 인정받은 5·18 추모행사를 하려하거나(효천고), 5·18묘지 참배를 하려고 역에 나갔다고(대천고)학생들을 무기정학 등으로 징계했다. 심지어 학생회칙개정 설문지를 돌린다거나(전주 공고), 교내합창대회곡으로 '그날이 오면(노래를 찾는 사람들 곡, 방송중)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시국사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며 빨갱이라고 폭언하기까지 했다. 인천 명신고에서는 여고생들을 7시간 감금하고 각목으로 구타하여 세상을 경악케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 탄압은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전국의 수천이 넘는 학생들이 이러한 억압적인 교육으로 인해 참담한 고통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통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고통을 못 이겨 죽지 못해 학교 다니고"있는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경양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결국 당국의 무자비하고 야수적인 학생탄압이 학생을 죽였던 것이다.

최근 "나의 희생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방법이 바뀌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일고의 정성묵이나(6월4일) 참교육실현을 외치며 투신 자살을 시도한(6월11일) 원화여고의 김미경양, 선생님과 사회에 대한 원망을 남기고 죽은 대광 여고의 오경옥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더이상 학생들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

"나의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고 유언한 수경양의 죽음은 전국적인 학생탄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2월~6월까지 전국적 학생 탄압 상황(학생활동 관련 전교조 학사국)

퇴학 3명, 자퇴(강제) 2명, 무기정학 43명 유기정학 11명, 근신 26명 자술서·각서 강요 25명, 감금·구타·폭행 26명, 자퇴 및 전학강요 1명 체벌사망 1명, 6월 전후 자살기도 11명(그 중 8명 사망) 계 149명

다음으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반교육적, 반봉건적 학생관의 문제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적인 학생관으로, 교사와 학생관계를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항의를 받으면, 건방지다고 감정적 폭행을 하기 쉬운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는 그렇지 않지만, 서진교 교사의 경우 소

연양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감정에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도 인간인 이상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3) 평가.

결국 이 사건은 논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당국의 전국적인 학생 탄압정책이 낳은 살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참교육을 지지하는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탄압하는 당국에 대한 90년대 '주체적 학생상'인 한 여고생이 극한적인 항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과

작년 전교조 사태 때 대구 경화여고에서는 수경양의 담임이었던 최진열 교사를 포함 모두 6명의 교사가 해직 당한다. 이때 수경양은 해직반대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하고 그것으로 인해 소위 '찍히게' 된다. 그 후 학생회장 선거 때 회장으로 출마하려 했고, 당시 학교 분위기로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구 차은남양이 선거에 입후보 할 의향을 비추자 차은남양을 적극지원하여 당선 시킨다. 이 때 선거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는데 이것도 또한 학교측에 의해 더욱 문제학생으로 찍히게 된다.

그 후 학생회 총무부장이 되어 학생회장과 함께 학교를 이끌게 되는데 이 당시 대구의 다른 학생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했던 경화여고 학생회는 많은 탄압을 받는다.

대의원회에서 발언했던 학생들이 연거푸 퇴학을 협박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고 대의원 회칙 개정 발언을 했을 때는 지도교사가 수첩을 집어던지고 나가 버리며 회의를 중단시키기도 했고, 학생회장은 인사를 해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후배들은 수경이의 조언을 들으며 고통을 삭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의 주축인 수경이는 누적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서진교에게 폭행 당한 후 퉁퉁 부은 눈으로 소연이에게 "내가 왜 학교 다니기가 싫다고 했는지 너도 알겠지?"라고 한 말에서 그것은 잘 나타난다. 특히 금년들어 열심히 공부해 보고자 했던 수경양에게 담임교사의 '문제학생'시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그것은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고자질'한 것 또한 그것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문제의 서진교 교사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소연양의 증언에 의하면 청소시간에 음료수를 사먹으로 나가다가(이때 다른 학생들도 평소와 같이 출입하고 있었다.) 서진교 교사가 "너희들 이리 와 봐!"하고 불렀으나 이를 못 듣고 그냥 지나치자 "이자식들 이리 안 와!"해서 서교사 앞으로 가니, 마시던 음료수 병을 던지고 머리를 때리고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은 처음"이라 하며 체육실 앞으로 데려가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서진교 교사는 소연이는 맞아서 많은 눈물을 쏟자 수돗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수경이에게는 유서에 나와 있듯이 "퇴학이 어쩌니 저쩌니, 앞으로 사회 생활이 어쩌니 저쩌니, 그리곤 자신이 너무 했다고……"라고 적혀 있다. 둘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체육실을 나와 "소연아 내가 왜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지 알겠니"하고 얘기를 했다. 그후 소연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니, 안아 주면서 위로 하고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었다. 수경이는 소연이를 부축하여 음악실로 옮겨 주고 찬수건으로 얼굴 등을 닦아 준 후 7시경 담임과 함께 소연이를 부축하여 집까지 바래다 준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회장 차은남 양에게 쪽지편지를 친구를 통해 전해 주고 부모에게 유서를 남긴 후 작년 담임이었던 최진열 교사에게 편지를 부치고 투신하여 11시경 영남대 관리인에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그 후 6월 7일 장례식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에서 추모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오후 3시경 영구차가 학교 후문으로 들어와 바로 정문으로 빠져 나가자 약 15~6명의 학생들이 영구차 앞에 드러눕기도 하고 했으나 결국 영구차는 출발, 오후 4시 30분경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였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 200~300여 명이 잠긴 교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약식 추모제를 지냈다.

6월 9일에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동문, 학부모회,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위령제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대에서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접한 대구 원화여고 김미경 학생은 참교육 실현과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4통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영남대에서 투신하였으나 요행이 목숨을 건졌다.

4. 고 김수경양은 어떤 학생이었나?

김수경양은 부부교사인 부모의 2녀 1남 중 차녀로 태어나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중학교 때도 반장을 하고 선행상을 받았고, 성적도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했다. 고교시절에도 고2 때 반장을 했으며, 통지표에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근면·성실하고, 명랑·쾌활하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적혀 있다.

2학년 때 담임교사 최진열 교사에 의하면 "무척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고민을 같이 아파해 주며, 자기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무척 인간미가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 '넉넉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를 잘 몰랐으나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눈을 떠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학생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학생이었으며 실제 학생회장에 출마하려 하다가 현 학생회장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 학생회 총무를 맡아 학생회장과 함께 학생회를 이끌게 된다.

그런데 금년들어 학교측의 학생회 탄압이 가혹해지고, '찍힌 학생'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에 빠진 상태에서 친구들의 고통의 상담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고민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평소"내가 죽어야 학교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한 것을 볼때, 학생회가 탄압을 받아 무너져 내리던 과정 속에서 그 짐을 혼자 지고 고통스러워했던 한 여학생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심성면에 있어서는 무척 순수했던 것 같다.

일기를 보면 "모든 걸 사랑하며 무엇을 보던 간에 긍정적이고 싶었고 언제나 깨끗함만을 추구하는 철 모르는 그러면서도 이해하는 소녀피터팬이고 싶다."라고 한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느끼던 모순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장래 희망이었다고 편지에 적혀 있다.

5. 각종 유언비어에 대하여

성적비관 자살이라는 언론보도가 이내 수경이의 예언적 유서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얼굴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수경이는 자살을 기도하고 동맥을 끊은 흔적이 있다."
"운동권 아이들은 원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다."
"원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
"정신이상자다."
"들어오는 것을 한 방 때리고 체육실에 들어가 한 방 때린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수경이를 매도하고 호도하기 위한 왜곡된 유언비어임이 전임교사와 학생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6. 사건의 의미

수경양의 죽음은 86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어간 서울 사대부중 ○양의 죽음과 비견된다. ○양은 8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인간적인 교육에 죽음으로 항거하므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교육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다. 수경양의 죽음은 89년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자각한 한 학생이 주체적 활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자 발버둥치다가 학교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써 저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경양의 "나의 죽음을 왜곡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땅의 노동 현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 치다가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란 말을 남기고 분신 자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뿌리 박게 했던 전태일 열사를 상기케 한다.

수경양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의 참교육과 학생 자치활동 탄압으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극한 저항의 수단으로 자살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수경이가 유서에 남겼듯이 "우리 학교는 다닐 곳이 못된다. 내가 죽어야 학교가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을 깊이 새기고, 수경이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바로 받아들여 산 자들에게 촉구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마지막 덧붙이는 말

누구보다도 교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교조를 지지하다, 교사복직을

지지하다. 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학교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협박을 당하고 실형까지 언도 받은 학생들에 대해 무관심 했고, 현장조합원은 그들대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에 대처하기에 바빠 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전교조가 학생들의 철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가, 교사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학생들은 그 아픈 고통을 견디며 해직, 현직교사를 걱정하며 웃으면서 온갖 위로를 해 주었는데 비해 해직, 현장교사들은 학생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이다.우선 분회별 추모행사를 제의한다. 모여서 술이나 언행을 삼가하면서 묵념과 토론을 한다면 20~30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학생과의 관계를 냉철히 반성해 보고, 바람직한 학생과, 학생과의 만남, 새로운 생활지도 방법들을 토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의 폭력, 억압교육 등 학생인권을 저해 하는 제반 교육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예컨데 학생징계에 있어 담임이나 교사의 권한, 학생진술권 문제, 자치활동 보장문제, 학생회에 대한 의미 공유 등) 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학생이 죽지 않도록 안 때리기 등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공허한 책임의식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경이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고 설명하여, 집단적인 토론을 거쳐,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90년대의 주체적 학생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도 수경이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친구들의 아픔을 방관하고 외면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하고, 주체로서 참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주적 학생회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탄압을 공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촌지나 갖다 주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해 진정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데 교내 폭력 추방 운동이나 비인간적 교육환경 척결 운동 등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고통에 빠져 죽음을 택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이다.

(1990. 6)

김수경 학생의 죽음이 던지는 충격과 의미

전교조 학사국

지난 6월 5일 대구에서 발생한 고 김수경(경화여고 3년) 학생의 죽음은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남에 따라 그 충격은 물론이고 파장 또한 실로 엄청나다. 비인간적인 입시교육의 중압감 속에서 해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김수경 학생의 죽음은 살인적인 입시교육에 짓눌려 죽어간 어린 학생들의 죽음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김수경 학생이 죽기 전에 학생회장 앞으로 남긴 편지에는 "한 번 운동권(?)으로 찍힌 학생은 사사건건 트집이 된다." "힘들겠지만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 달라."고 쓰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죽음이 왜곡되지나 말았음 좋겠다."라고 쓰고 있다.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회 활동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김수경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생활이 명랑하였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도 원만하였으며 자신의 그것보다 항상 아픔을 먼저 헤아리며 다독거려 줄 줄 아는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또한 김수경 학생은 평소 담임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오로지 입시공부만을 강요하며 옥죄는 학교생활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교육현실에 문제를 느끼면서 해맑은 웃음이 가득찬 밝고 맑은 학교를 가슴으로 열망하던 강건하고 소박한 품성의 학생이었다. 그런데 작년 참교육 운동과 관련해 담임인 최진열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이 강제로 해직되자 참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경화여고생들의 간절한 요구를 앞장서서 주장하였다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소위 문제학생으로 찍혀 갖은 푸대접과 탄압을 받아야만 하였다. 거기다가 학생 자치

활동으로 사사건건 탄압당하고 일상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였으며 노골적으로 '빨갱이년'이라고 욕을 들어온 수경양은 학생회장에게 "학생회장이 좋긴 좋다. 그래도 너는 나만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평소 학생회 활동에 열심인 친구들에게 가해져 오는 학교측의 일상적인 탄압과 비인격적인 수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죽어야 이 학교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한탄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수경이를 죽음으로 몰고가는데 결정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6월 5일 폭행사건도 그러하다. 청소시간인 오후 5시경 친구 소연양과 함께 교문앞 문방구에 나갔다가 들어오던 중 서진교교사(체육,33세)에게 붙들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모욕적인 구타를 당하였다. 그 결과 평소 몸이 약한 소연양은 30분간 의식을 잃기도 하였는데 경화여고는 평상시 학생들이 청소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교문밖 출입을 해 왔고 실제로 두 학생이 무릎꿇려 구타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문밖 출입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독 두 학생에게만 비인격적인 체벌을 가한 것이었는데 이는 전교조 교사에 호의적이고 학생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일상적 탄압을 보여 주는 사건의 한 단면이었다.

요컨데 김수경양의 죽음은 89년 전교조 운동 이후 학생대중의 자주적 의식이 고양되고 교육주체로서의 자각과 진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학생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일제식민 치하로부터 지속되어 온 폭압적이고도 억압적인 학교교육의 본질이 적극 폭로되고 발가벗겨지는 현실에 놀란 결과, 반민주교육 세력들은 중·고교 학생들의 대중적인 의식고양과 학생자치 활동의 요구 등 자주적 진출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89년 하반기 1,600여 교사들을 쫓아낸 이후, 현장의 목소리가 약해진 기회를 틈타 학교 현장을 5공으로 회귀시킴과 아울러 학생부문에 대해서도 구속·퇴학 등 대대적인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자주적 의식의 고양과 학생자치의 맹아를 보여온 선진적인 학생역량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과 잔혹한 침탈을 자행하여 왔던 바, 이는 89년 하반기로부터 90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된 학생탄압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

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수경 학생의 죽음은 언론의 일부 보도처럼 결코 단순한 죽음일 수 없으며 89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극심한 학생탄압의 연장선 위에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수경학생의 죽음은 86년 「○양의 죽음」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86년 「○양의 죽음」은 입시구조의 교육 모순 속에서 교육의 객체로서의 죽음이었다면 90년 김수경 학생의 죽음은 참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종 거부의 몸짓으로 일관하는 반민주 교육세력의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학생탄압에 죽음으로 맞서 항거한 교육주체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깊은 충격으로 새겨지는 수경양의 죽음의 의미는 그 책임소재에 있다 하겠다. 김수경 학생의 죽음 이후 학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죽은 수경이를 터무니없이 매도하는데 광분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서나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서 수경양의 죽음을 왜곡시키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작태를 연출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성격이 소심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린 학생"이라는 둥"본래부터 정신이상자였고 중학교 때부터 동맥을 끊어 세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한 어리석은 성격파탄자"라는 둥 얼굴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평소 문제가 많은 학생이 충동적 반발로 일으킨 단순 자살소동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운동권 아이들은 원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거나 "원래 수경이는 성격에 결함이 많은 학생이며 이번 일로 오히려 서진교 교사가 정말 피해자"라는 둥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려는 저열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아뭏든 김수경 학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들이 어떻게 거짓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켰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을 짊어진 이 시대의 교사들인 우리들 스스로 수경양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우리 제자들이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혹독히 고통받으며 죽음을 결심하는 극한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동안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기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땅의 참된 교육을 곧게 세우고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신명바칠 것을 마음으로 다져온 우리 교사들

이지만 교단을 참혹하게 빼앗긴 그날 이후, 해직이든 현장이든 모두 여전히 우리 제자들인 학생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가를 직접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소홀히 하였거나 학생 만나기를 두려워 하였고, 따라서 어린 제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무심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떠난 학교현장에서 소수 교육 모리배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갖은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으며 오히려 우리 교사들을 앞서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제자들이었다. 정작 위로 받고 격려 받았어야 할 우리의 연약한 제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의 무책임 속에 그냥 방치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김수경양의 죽음을 통해 오늘의 학교현장이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극히 일부의 교육모리배들에 의해 얼마나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현실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장차 이 겨레의 소중한 희망들로 자라날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일체의 거짓과 폭압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에 대항해 결연히 싸워나가야 하겠다. 그 길만이 수경이를 비롯해 무수히 죽어간 제자들과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우리들일 수 있는 것이다.

무릇 학생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더우기 전교조 역시 학생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학생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뿐이다. 해직이든, 현장이든, 학생을 중심에 놓고 일을 해야 하고 학교 안팎으로 학생을 부단히 만나면서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0)

이 글들은 김수경 열사의 벗들과 대구지역 후배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열사의 죽음의 의미와 남긴 뜻에 대해 함께 토론한 것을 정리한 글로서, 92년 2주기 추모 자료집에 발표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빈 자리를 우리 함께 채워야 할 때

친구들의 빈 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메꾸어 가야 합니다

"내 죽음이 왜곡 되지나 말았으면"이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목숨을 던진 수경이.

수경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뼈저린 아픔을 주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에 가득차 있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수경이가 우리 곁을 떠나 버린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그러나 수경이가 그토록 바라던 참세상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시끌벅적한 웃음이 넘쳐야 할 교실은 살벌할 정도의 정숙함으로 찾아들고 언제부턴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빈 자리는 늘어만 갑니다.

이제 친구들의 자살은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이고 몇 분짜리 흥미거리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움과 떳떳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참다운 배움의 의미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구석에 던져지고 아깝게 죽어간 친구들의 한 맺힌 영혼은 낙오한 자의 표본이 되어 그들이 우리 산 자에게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수없이 왜곡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냉정해지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친구들이 떠나고 난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친구들이 아까운 목숨을 저버리며 남겨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했을까요? 살아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죽음을 바로 알고 아직도 허전히 남아 있는 친구들의 빈 자리를 힘 있게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친구들의 자살은 더이상 자살일 수만은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죽어갔던 어느 여중생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현 교육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한 마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가 단지 개인의 나약함과 의지의 부족이라 여겼던 것이 더이상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회의 주인을 기르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진정 우리 학생들이 주인인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 시간 교문에 들어서면 번뜩이는 눈빛으로 마치 죄수들을 잡아내듯이 복장검사, 두발검사로 학생주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붙잡기 여념이 없습니다. 자율학습시간으로 전락해 버린 학급활동 시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없어져 버리는 체육 시간, 보충할 것도 없는 보충수업 시간,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시간표, 그 어디를 찾아 봐도 우리의 수업시간은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누구는 내가 10점을 더 좁혀내야 할 몇 번째 경쟁상대, 몇 점, 몇 등, 정답은 몇 번, 교실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만 가득합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열어 보

고 구석에서 몰래 흐느끼는 아이, 보란 듯이 기뻐하는 아이, 누군가 만든 행복의 순위로 교실은 갈기갈기 찢기워져 있습니다. 대학이 아니면 안된다는 지금 사회의 생존원리에 꿈 많고 희망에 부풀어야 할 우리들은 밟고 서지 않으면 밟혀 쓰러지는 전쟁터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 통계를 보면 청소년 중 자살충동을 느껴 본 사람은 전체의 73%가량이며 자살을 기도했거나 자해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문제, 성적문제 등 현 교육의 문제점에서 파생되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을 가르쳐야 할 교육, 미래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우리들, 그 사이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친구들.

현교육은 학생들을 죽음 앞에서 갈등하게 합니다.

친구들의 자살은 더 이상 자살일 수만은 없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전교조

비 오는 어느 날

친구들은 여느때처럼 삼삼오오 모여 시끌벅적하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첫 시간은 국어시간

가장 기다리지는 시간이다

항상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국어선생님을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

수업시간 종이 울리고 선생님은 교단 앞에 서시었다

선생님은 울고 계셨다

어리둥절해 하는 아이들에게 지금은 잠시 너희들과 헤어져 있어야 한다면서

교과서의 이야기보다 너희들의 삶이 더욱 아름답다는 말을 하시며 교단을 내려서고 계셨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희들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한 친구의 일기입니다.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게 된 너무나 뼈 아픈 기억 속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 교육, 폭력적 교육에 반대하고 참다운 인간화 교육을 하고자 일어선 선생님들의 양심선언에 교육당국은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선생님들을 해직시키고 말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정기를 배우고 민주적인 사회를 세우고 진정 인간답게 사는 길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난 우리의 청소년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일꾼이 되어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고 그럴 수 있게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임무일 것입니다.

참된 삶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면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곳이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기와 경쟁, 남 앞에 군림하기를 강조하는 절름발이 교육입니다.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감수하는 참다운 민주의 의미를 상실한 채 '개인주의' 나아가 하나하나 개별화시키는 그 속에서 경쟁만을 강조하는 원래 인간의 특징이라는 사회성과 집단성을 무시하는 그릇된 모습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이토록 모순 가득한 현실 앞에 굴복하고 순응할 수 없으며 제자들 앞에 당당한 스승이 되고자, 교육자의 참된 길을 택하셨던 분들이 바로 전교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교육을 갈망했기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의 선생님이 자랑스러웠기에 우리들의 교실과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싸워나갔습니다.

그것은 경쟁에 찌든 현실을 박차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스승과 제자의 감동적인 만남이었으며, 생이별을 강요하는 병든 사회의 진통이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눈물을 뒤로 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떠나셨지만 선생님들과 눈물로 약속했던 참 세상의 길, 온 민족이 하나된 조국, 민주의 꽃이 만발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넘치는 사회로 가는 민족, 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에 대한 갈망은 우리들 가슴에 살아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너는 운동권이야

—반인간적 교육에 죽음으로 항거한 김수경 학우

2년 전 '경화여고 3학년 김수경양 투신, 교사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뒤 비관하여 자살'이라는 내용의 소식이 텔레비젼과 신문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자살 소식을 전하면서도 수경이가 교사에게 몇 대를 맞았고, 어떻게 맞았으며, 왜 맞았는지 하는 말만 들릴 뿐, 수경이가 왜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수경이를 죽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수경이는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듯 우연한 계기로 약간의 구타가 가해졌다는 정도로 본질을 왜곡한 채 학생활동에 대한 서진교 교사의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것은 감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경이가 죽어가던 그해 90년은 지난 89년의 전교조 결성으로 수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셨던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슬퍼하며 상처 받았던 것처럼 수경이도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 보내고 아파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참다운 교육의 열정과 선생님을 동시에 짓밟히고 빼앗겨 버렸던 우리들은 선생님과 다시 만나고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나아가 학교의 주인으로 바로 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죽어갔던 친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더이상 친구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려는 우리들의 다짐이요, 눈물로 선생님을 떠나 보내었던 고통의 댓가였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는 학생회를 건설하려는 등 참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일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물론 수경이도 그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경이는 학생회의 간부였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돌려받고 참교육의 실현을 갈망하던 누구보다 적극적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경이를 따라다니는 것은 교사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기회만 있으면 운동권이 어쩌니 '사상에 물든 학생'이라는 학교측의 비난과 비방이었습니다.

경쟁과 개인만을 강조하는 입시제도와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려는 현재의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학교를 용납할 수 없었고 갖은 비난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사회와 민주의 밑거름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덮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교육당국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교 교사의 폭력행위가 가해지고 수경이는 죽어갔습니다.

누가 수경이를 성적비관으로 죽었다 말합니까? 그 또한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화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행위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현교육과 학생들의 활동을 폭력까지 동원해 저지시키려는 교육당국에 죽음으로 수경이는 항거했습니다.

"전교조를 지지했던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죄값을 받고 싶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던 수경이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전진하는 고등학생
— 삶의 주인, 학교의 주인

우리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성세대로부터 불리워지는 '너희는 아직 어려' 라는 사고방식의 잔재, 입시제도로 찌들어 오는 압박감 등 우리가 떳떳한 삶의 주인으로 서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직도 커다랗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 역시 사회의 주인임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사고와 건전한 삶 속에서 커가는 우리는 곧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 민주화의 토대라 여겨집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에서 결코 조국의 앞날과 민주화된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또한 교육의 주체로써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더이상 친구들이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2의 수경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언제나 떳떳하게 역사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서도 그러했고 부패한 정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우다 값진 피를 흘리며 조국을 위해 산화해 갔었습니다.

살아 있는 자는 죽어간 자의 고통의 수십 배 수백 배를 감수하며 죽어간 자의 넋을 지켜야 합니다. 못다한 그들의 목숨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수경이가 떠난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힘차게 수경이의 뒤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학교 안에서 우리들의 학생회를 건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가는 등 확연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참교육에 대한 갈망과 염원 역시 누가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죽어간 친구들의 넋을 바르게 기리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친구야 세상이 희망차 보인다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자

지난 수 년간 우리 고등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나아가 찌들어가는 사회를 바로 하고 당당한 사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숱한 발전과 어려움을 거듭해 왔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함께 하며 현 교육의 문제와 폭력적인 학생인권 탄압에 맞서 보충수업, 자율학습 거부 등 현교육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의 몸부림을 계속해 왔습니다. 거듭되는 입시제도

의 병폐와 나아가 조국을 영원히 분단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교육의 암담한 현실은 이제 단순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친구들이 현실을 바로 보고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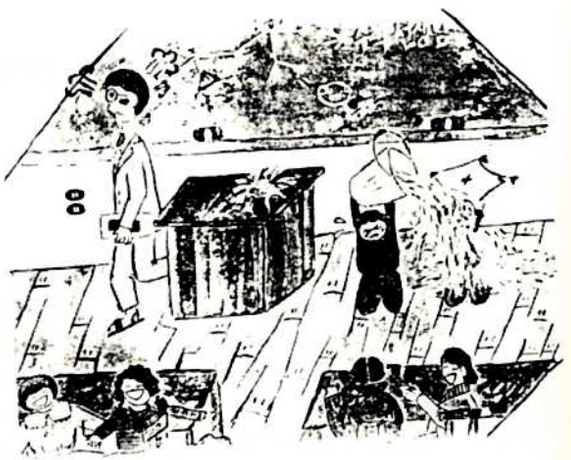
우리에겐 학생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름뿐인 학생회, 돈낼 것을 결정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자주적인 힘을 가지는 학생회,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학생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학교를 바르게 만들어 가는 학생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요구와 그들의 고민을 바르게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일을 찾아 떳떳하게 학교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경이가 그토록 바라던 참세상, 친구들이 떠난 자리가 수많은 우리들을 꽉꽉 메워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더욱 힘차고 맑은 얼굴로 영원히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야, 세상이 희망차 보인다"



□ 대구지역 고등학생 글 모음 (Ⅱ)

이 글들은 대구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들이 겪은 학생 인권 유린의 체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학생인권에 관하여

윤 영 구
성광고 92년 졸업

일반적으로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 첫번째가 진리와 정의를 교육 받을 권리로, 학교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다. 두번째, 학교는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다. 주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은 자율성을 그 교육의 원리로 삼는다. 이러한 자율성을 제도적 · 방법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을 '민주교육'이라 부르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민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번째, 생활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권리이다. 학교는 사는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자율적인 학교활동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목표이다. 네번째, 저항할 권리이다. "학생이 어디서 대드느냐, 건방진 것 같으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학생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10여 년의 학교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의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몰랐다. 물론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학교생활에서는 항상 의무만이 강요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체벌, 기합, 구타, 반성문, 폭언 등과 진학과 취업시 불이익이 뒤따랐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존중받아야 할 엄연한 인격체이고 선생님의 명령이 모두다 올바르다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학교 운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어른(선생님)들은 우리가 아직 어리다느니, 질풍노도의 시기라느니, 배우는 학생이라느니 하며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이것을 모든 행동 제재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틀'에 가두어 버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우리들의 건의사항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고 학생의 권리니 자주적 학생회니 하는 말들은 학교 혹은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불온시 되어 징계의 사유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90년 6월 5일 학생의 인권탄압과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며 투신자살한 경화여고 3년에 재학중이던 고 김수경 친구의 뜻을 기려 6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한데 맞추어 우리들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아예 당연시 되고 있는 인권탄압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탄압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학생인권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탄압의 유형

1. 폭력행사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방법으로 각목 등으로 학생들을 구타하고 개별 학생을 감금, 협박, 구타하는 것이다. 본능적 공포를 일으켜 인간의 이성을 무력화 시키면서 굴종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직접폭행 (여학생의 경우 성적인 폭행) 이외에도 생활을 감시하고 부모에게 협박하며 매일 불러 나무라는 등 소위 '찍힌' 학생으로 비인격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가한다.

2. 징계

폭력적 방법은 한두 개인에게 위압적이고 시범적인 폭행을 통해 그것을 본 다수의 학생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여 굴종하도록 하고 학생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 학생이 크게 다치고 학생, 학부모, 시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징계를 통해 학생을 탄압한다. 이 과정에서 학칙과 선도규정이 마음대로 적용되고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은폐된다. 또 징계를 함으로 더 많은 학생과 교사에게 위협의 효과를 노리기도 하는 것이다.

3. 물리적 봉쇄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경찰, 장학사, 폭력교사, 어용 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탄압한다.

4. 흑색선전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수업시간, 훈화시간, 또는 개별면담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을 '좌경의식화, 불순분자의 배후책동, 학생답지 못한 비도덕적 행동, 입시공부 실패의 원흉' 등의 수법으로 왜곡·날조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자각한 학생들을 주변의 동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관제 언론, 가정통신문, 육성회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학생자치 활동의 탄압 유형과 사례

1. 참교육 요구 활동 탄압

인천 명신여고에서는 교사의 부당해직 반대와 학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학생활동에 대해 3개월간 24명 부상 (그 중 2명은 전치 2주의 중상), 1명 퇴학, 5명 무기정학 등의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다. 서울 중앙고에서도 우열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징계하였다.

2. 학생의 권리 침해

대구 경화여고에서는 학생회장을 수업에 들여 보내지 않고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전남 고척고에서도 학생을 감금, 폭행하고 경찰에 연행하여 학생의 학습권리를 박탈했다. 특히 대구 경화

여고에서는 한 학생을 찍어 두고 집요하게 불평등한 대우와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거창의 대성고에서는 학생을 숙직실에서 감금하여 삽을 들고 위협하는 등 극심한 인권유린도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성폭행 사례까지도 드러나는데 1987년 경기도 파주여종고, 89년 전남 벌교고, 90년 서울 명덕여고 등에서도 교감과 주임교사에 의해 성적 희롱과 성폭행까지 자행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몰래 소지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수첩을 빼앗는다든지 학생의 방을 뒤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3. 학생회 활동탄압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로 광주 대동고에서는 학생회를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한 학생을 폭행해 입안이 터져 8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전화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서울 문일고에서도 학생회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고 학생회장을 퇴학시키고 간부3명을 무기정학 시키기도 했다.

4.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탄압

서울의 경우만도 '89 ~ '90 사이에 구로고, 영등포여고, 항공고 등 수십 개 학교에서 활동상황을 감시하고 특활반 동아리 등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탄압했다. 서울 대일고에서는 연극활동을 한다고 학생 4명을 징계 협박했다.

5. 전교조 관련 탄압

졸업식 후 해직교사와 만났다고 학생을 징계한 대구의 경상고등학교 등 전교조교사와 만난 것 자체가 탄압의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 89년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전교조 지지를 표명했다가 학생들이 폭행과 징계를 당했다.

6. 학생행사 탄압

학생공개단체나 교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경찰과 장학사를 동원해 막을 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협박, 폭행, 징계한다. 학생단체가 주관한 '우리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량징계, 5.18광주항쟁의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역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대량징계 당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경우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 탄압 사례 · 1 〉

우리의 노력만이 해결의 가장 큰 힘

우리 학교에서는 여타 학교보다 여러 가지로 인권유린이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발문제에 대해서는 혹독할 만큼 억압적입니다. 얼마전 학생과의 지도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서 무조건 머리가 긴 친구들을 구타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여 왔던 반항심이 생겨, 나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 중 '학생 인권'에 대해 지도교사에게 반박하며 항의했습니다. 반친구들이 동의하며 박수를 치자 그 교사가 "그래 니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머리 깍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고 하며 웃도리와 시계를 벗고 저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 40여 분이나 계속되는 주먹질, 발길질로 저의 얼굴과 온몸은 피멍이 들었으며 또 그 지도교사에게 반성문까지 강요당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그날 수업이 마치기도 전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학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에 있는 교사 중에는 몰지각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최소한의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가 아직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끊임 없이 노력할 때만이 교육적(?) 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 탄압사례 · 2 〉

이년이 학교 말아먹을 빨갱이년 아냐?

팡팡팡! 지랄탄이 더럽게도 파고 든다. 눈물, 콧물은 물론이고 금방이라도 죽어 버릴 것만 같다. 이젠 구토증세까지 일어날 지경이다. "어머 죄송……"눈을 뜨면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 잔뜩 움추리며 뛰다가 누구랑 세차게 부딪혔는데, 세상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박선생님이 아니신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굳어진 표정을 애써 부드럽게 지으시며 인사를 나누었던 그 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홀연히 떠나가신, 그리도 그리던 교단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런 지옥 같은 거리에서 만나다니…….

어지간히도 더운 날이었다.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고 기분까지 나른한데, 게다가 수업종이 쳐도 선생님이 들어오실 생각을 않는다. 교무실에 분필 가지러 갔던 정희랑 화정이가 하얗게 질려 후다닥거리며 교실로 뛰어온다. "야들아, 교무실에 난리가 났다.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박선생님이 짤린단다."순식간에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고, 한 아이는 통곡을 하며 가방을 싸짊어지고 교실문을 박차고 나간다. 앞뒤 판단도 안해 보고 그저 한 아이의 충격적인 한 마디에 이성을 잃은 아이들은 곧 이 일이 전교조 문제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다. 책가방을 싸고 교실을 나가는 아이 하나를 몇몇 아이들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교실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교단을 두드리며 일단은 아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토론으로 들어갔다. 다른 학교에서는 전교조 싸움의 열풍이 한참 뜨겁게 불붙어 올라 타들어가다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한 이날 7월에, 그제서야 우리는 조용한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우린 무조건 우리 선생님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권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땐.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얻은 결론도 없이 토론은 얼마 안 가서 끝이나고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물상수업 중에 한 아이가 방송으로 불려가더니 이내 날 찾으러 왔다. 분명 이 잠깐의 움직임은 담임의 귀에 들어갔을 테고, 아주 치밀하고 치사한 담임은 가장 감상적이고 딴엔 토론 때 열을 내어 발표하던 소위 허술한 아이를 불렀고 그 아이는 또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이름을 대었을 것이라는 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추측해 낼 수 있었다. 조금은 두려웠다. 아니, 그런 내 태도가 미워서 그저 덤덤하게 계단을 밟았다. 계단이 너무 길었다. 현관문을 통과해 교무실을 향하다 보니, 교무실 계단 앞에 우리 담임선생님이라는 분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계셨다. 야무딱지게 마음 먹고 선생님 앞에 서는 순간, 무언가가 내 뺨을 세차게 휘갈겼다. 반사작용이었는지 반항심이었는지 순간적으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들고 있던 교무수첩이 뒤통수를 휘갈기고 지나간다. 자존심이 상했다. 또 고개를 쳐 들고 담임의 얼굴을 노려 보았다. 무서웠다. 며칠간 굶주린 산짐승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잡아 놓고 금방이라도 덮쳐 버릴 것 같은 기세로 바짝 노려보는 것 같더니 또 한 번 세차게 주먹이 날아왔다. 아팠다. 귀가 잘려 나가는 듯했다. 이내 두 눈에선 의미 없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난생 처음 뺨을 맞아 본 수치스러움에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 새끼 너 뭐야? 가만히 보자하니까 이년이 학교 말아먹을 빨갱이년 아냐?"이럴 수가! 입술이 부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서러웠다. 그저 목이 메여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다. "박선생 뭐야?"저 멀리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고 국어선생이 다가왔다. "응! 이새끼 이거 가만히 놔 뒀더니 학교 말아 먹을라고 설치잖아."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선생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샌가 다가온 국어선생이 다리를 세차게 걷어찼다. 또다시…… 잠시 몸을 비틀거리다가 곧 몸을 추스렸다. 그 순간의 고통과 죽어 버리고 싶을 만큼의 수치를 느끼면서도 그저 눈물만 날 뿐이었다. 통증이 심했다. 정말로 아팠다. 둘 다 죽여 버리고 싶다는 독기가 온몸으로 퍼져갔다. 종이 친다. 퉁퉁 부어오른 눈에 눈물이 고여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종소리를 들고는 흠칫 주위를 돌아보던 담임이 이번엔 무겁게 소

리를 깔며 입을 열었다. "따라 들어 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 가더니 뒤를 돌아보고 소리친다. "빨리 들어와 임마!" 후들후들 떨려오는 다리를 지탱하며 어디론가 끌려 들어간 곳은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경사실」이었다. 두려웠다. 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앉으라는 손짓을 한다. 참으로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이새끼, 네가 주동자지?" 다소 부드러운 말씨였지만 거짓말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조로 물어왔다. "선생이 무슨 노동자야? 응 새꺄?" 온 힘을 다해 입술을 떨어 보았다. 목이 메여 쉬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는 선생님도 일종의 정신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번 불이 번쩍하는 것 같았다. 이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가는 아무도 없는 이곳 지옥 같은 곳에서 죽여 버릴 것만 같았다. "이새끼 뭐야? 그 선생들 다 우리 동료야! 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로 나라 어지럽히고 저그들 좀 더 잘살겠다고 너거들같이 순진한 애들 이용해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야! 너는 지금 일회용 반창고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울컥 화가 치밀었고 숨이 막혀 왔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진정 누구한테 해야 할 소리인데, 딴 건 다 참아도 우리 선생님을 모욕하는 식의 거짓말은 참을 수가 없었다. "전 그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더더구나 그 선생님이 시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역시 저희들을 사랑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담임의 눈에선 불똥이 튀는 것 같더니 책상을 힘껏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허옇고 비덩비덩한 살이 찐 손이 다시 한 번 뺨을 후려쳤다. 의자 다리가 옆으로 휘청거리며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듯 비틀거리다 곧 몸을 바로 잡았다. 꼭 움켜 잡은 작은 두 주먹 위로 정말로 굵은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의자를 당겨서 앉은 담임은 웬일인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씨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머리 속에는 온갖 혼잡한 생각으로 꽉 차버려, 그리고 이젠 더이상 입술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무언가 이야길 들었던 것 같고 억지로 대답을 강요 받으면서 몇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기억밖

엔……. 괴로웠다. 버티려고 했지만 들었던 정학과 퇴학이라는 명(?) 무기를 들었을 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다. 그 지옥의 3시간 후 난 날마다 교무실로 불려가 사상교육(?)—이용당하지 말라는 너무나 고맙고 따듯한 충고의 말—을 받았고 , 선생님들께린 흔쾌히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니까 2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많이 알고 의식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린 소녀의 스승에 대한 버릴 수 없는 존경과 애착심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억울하고 수치스럽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몇 시간 동안의 억지 속에 되지도 않는 강요를 받았다. 그런 모진 인권탄압을 당하면서도 그냥 억울하다고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내 무지함…….

그 그 쓰라렸던 기억이 되살아 온다. 아직도 생생하게…….

〈 탄압사례 · 3 〉

예비 자퇴서를 써라!

나와는 동떨어진 남의 일같이 생각되던 말들. 선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말로만 듣던 탄압이 저에게 닥친 것은 올해 봄의 학생행사(토론회) 때부터였습니다. 선배와 같이 만나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계셨고 그 전화를 다행히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바꾸라고 했지만 그냥 안계신다고 둘러대어 제가 받았습니다. "행사에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방학 때부터 네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등의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박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후론 누군지 모르는 괴한(?)의 협박전화를 빼놓고는 잠잠하였습니다. 며칠 후 개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학기에 학생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교칙에는 9월 선거가 원칙이지만 삼월에 선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전부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직선제 선거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개학 전부터 선거 준비를 하였습니다. 포스타, 유세문……. 하지만 우리쪽 후보에겐 성적 증명서를 끊어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출마하면 담임을 그만둔다는 담임 선생님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후보 개인적으로도 집안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른 후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불과 선거를 이틀 남겨 두고 말입니다. 선생님께는 비밀로 하고 성적 증명서를 끊은 후 불과 20분만에 후보자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후보 지지운동을 하면서 저는 더욱 선생님들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도 무거운 체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정적으로 성적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전교석차가 4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보란 듯이 나에게 성적표를 보여 주면서 망신을 주고 또 그 구실로 더 심한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 선배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 했고 당연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은 선생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지내오다 사월이 되었고 또, 학생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며칠 전 자율학습 시간에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경찰서 정보과에서 넘어온 명단이라며 쪽지를 보여 주고 협박, 회유를 하였습니다.결국 「예비 자퇴서」를 썼습니다. 선생님의 말재주에 홀리기도 했지만 두렵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을 나서는 순간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엄지손가락에선 덜 닦인 도장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 참석을 못하게 되고 대신, 집에서 선생님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상하시게도 아홉시부터 네시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전화비 안드시냐니까 카드라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행사날이 지나고 나서야 자퇴서는 내 손에 의해 찢어졌지만 후련함보다는 패배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퇴서를 선생님이 보시는 앞에서 찢을 땐 정말로 후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지나가서인지 몰라도 나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강제적으로 억눌러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진정한 대화로서 풀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해결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 선배, 친구들, 그리고 인권을 무시당하며 지내는 친구들에게 이 글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V보도에서는 성적비관과 생활상의 문제로 한 여학생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경이는 그렇게 죽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것을, 참교육을 하시려는 선생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늘상 문제가 있는 학생이니, 빨갱이니 등의 보이지 않는 이상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며칠 전 한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폭언 등을 당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경화여고 학생회와 해직 당하셨던 선생님의 뜻이 왜곡되는 현실을 참을 수 없어 18세 꽃다운 나이에 영대 인문관 4층에서 투신자살하였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왜 수경이가 죽어야 했습니까? 살려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우리 수경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봐 주십시오. 왜곡보도하는 TV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원하는 저희들을 봐 주십시오"

경화여고 재학생 일동

(6월 7일 수경이가 학교에서 떠나고 담벼락에 붙었던 글)

진실은 마침내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겼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가?

아니다. 죽은 자도 억울할 때는 입을 열어 진실을 밝힌다. 이제 진상은 밝혀졌다.

아아, 얼마나 우리의 어린 제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죽음까지 결심하였던가!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 어린 제자가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수경이는 참교육을 열망하고, 참교육을 하려는 선생님을 지지한 죄로, 학생회의 중심간부로 활동한 죄 아닌 죄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고통을 받아 오다가,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누가 이 어린 제자를 죽였는가!

지금도 수경이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한 인간이 죽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모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양심과 진실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수경이를 우리의 가슴 속에 원래의 모습대로 되살려내야 한다.

(89년 당시 경화여고에 배포된 위령제 자료집에서)

제 4 부

김수경 열사 산화 관련 성명서 모음

□ 성명서

대구 경화여고 김수경양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 반교육적 교육 모리배들의 비인간적 만행을 규탄한다.

우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교장 손남규) 3학년 김수경양이 작년 이래 전교조 지지활동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비인간적 압박을 받아오다 급기야 당일 교사로부터 부당하게 구타를 당한 직후 투신자살하여 비통하게 죽음에 이른, 아니 죽임을 당한 사태에 대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간 민자당 정권과 문교당국의 참교육 말살, 전교조 탄압 책동에 의해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 퇴학, 정학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학생회활동을 방해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주체로서의 자각과 참교육 실천에의 동참을 집요하게 가로막아 왔다.

우리 전교조는 김수경양의 죽음을 자살이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의 교육 지배 음모에 의하여 교위, 교육청 등의 충직한 시녀로 전락한 반민주적 교육모리배들의 반교육적 전횡이 빚어낸 엄연한 타살로 규정한다.

우리 전교조는 김수경양을 죽음으로 몰고간 현 정권과 교육모리배들의 참교육 말살, 전교조 탄압 책동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의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며 김수경양의 너무도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학생탄압 분쇄투쟁에 총매진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一. 김수경양에게 비인간적인 처우와 구타를 자행한 관련교사와 학교장을 문책 처벌하라.
一. 교육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함께 자주적 학생활동을 보장하라.
一. 참교육 말살, 전교조 탄압 책동 책임자 문교부장관 정원식은 즉각 퇴진하라.
一. 학생탄압, 교사탄압, 민자당 정권 퇴진하라.

1990년 6월 7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 성명서

반교육적인 교육상황에 온몸으로 항거하다 먼저 간 고 김수경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우리는 한 어린 제자의 죽음을 맞으며, 애끓는 비애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을 감출 수 없다. 올바른 교육을 이 땅에 뿌리 내려 비인간적인 교육풍토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진정한 교육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자는 우리 교사들의 노력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처절한 선택에 거침 없이 몸 바치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실에의 목마름에는 단지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부끄러움과 자탄만이 가슴을 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며 언제까지 눈물과 슬픔으로 가슴을 쳐야 한단 말인가!

작년 전교조 운동으로 담임인 최진열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가 해직되자 진정 참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경화여고 학생들의 작은 바램은 엄청난 권력의 횡포 앞에 너무나 힘 없이 부숴질 수밖에 없었다. 김수경 학생은 평소 담임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입시로 목을 옭아매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교육에 문제를 느끼며 해맑은 웃음이 가득찬 학교, 열여덟 고운 꿈이 억압되고 박제되지 않는 학교를 가슴 죄며 열망하던 건강하고 소박한 학생이었다.

3학년이 되고 학생회 총무일을 맡게 되면서, 전교조 교사와 가깝게 지내거나 전교조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압력은 일상적으로 가해져 왔고 김수경 학생은 단지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체육교사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로부터 극심한 압박과 공공연한 폭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친구들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으며 "내가 죽어야 이 학교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한탄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6월 5일, 보충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간식을 사먹으로 갔다는 이유로 체육교사에게 붙잡혀 심한 매를 맞고 굴욕적인 꾸지람을 듣는 가운데서도 다른 학생들은 짝을 지어 간식을 사먹으로 갔고, 서교사는 보충수업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김수경 학생을 심하게 때렸던 것이다. 평소 학생회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감정적인 보복적 폭력과 꾸지람은 마침내 김수경 학생의 삶을 전면적으로 빼앗아 가 버리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다.

유서에는 "이 학교는 학생이 다닐 곳이 못된다. 영원히 안 올 학교이지만 학생이 공부를 할 곳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누가 열여덟, 어린 우리 제자들의 삶을 짓밟고 앗아가고 있는가!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를 6명씩이나 쫓아내고 나서도 모자라 자신들의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경화여고는 도대체 무엇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며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만든 폭력교사가 학교에서 활개를 쳤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와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방조한 학교장에게는 교육자적 책임을 넘어 인간적인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은 6월 6일, 영대 병원 영안실에 찾아와 "책임질 것은 지고 안 질 것은 안 지겠다. 여기 왔으면 됐지 않느냐."라며 제자의 죽음 앞에서까지 책임운운하는 관료적 작태를 보여, 보는 이의 울분을 자아내게 했다.

시교위측 또한 학생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그저 문제의 은폐와 무마에만 급급한 작태를 보였다. 시교위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적 기구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폭력교사와 이를 방조한 학교장에 책임을 물어 사퇴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수경 학생의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현 사회의 교육 모순이 낳은 지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이며, 교육 모순을 의도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살인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반교육적 상황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수경 학생의 죽음에 다시 한 번 피 끓는 애도를 보내며, 우리는 김수경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기에 또한 김수경 학생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차마 눈뜨고 지켜 보고 있을

수 없기에 다음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타협 없이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 리 의 요 구

1. 학교측은 고 김수경 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지 말고 진실을 즉각 공개하라.
2. 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라.
3. 학생을 죽음으로 내 몬 반교육적 폭력교사는 즉각 물러가라.
4. 학교장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가라.
5. 시교위와 문교부는 반민주적 교육상황을 해결하고 반교육적 교육관료와 교육자를 엄단 척결하라.

1 9 9 0. 6. 7.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대 구 지 부

우리 수경이를 두 번 죽이는 기만과 왜곡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서진교 교사와 학교장은 사과하고 퇴진하라

수경이는 갔다. 그리고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줌의 뼈로 묻혔다. 수경이는 갔지만 우리는 결코 수경이를 보내지 않았다. 누가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지는가.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수경이는 갔다. 이 고통스런 삶의 한 구비를 돌아서 영원의 강으로 흘어져 갔다. 그러나 수경이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영영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마지막 유언에서 "나의 죽음을 왜곡시키지 마라."고 한 말은, 그의 죽음을 팔아서 자기 입장을 세우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예언처럼 적중하고 있다.

수경이는 갔지만 우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우리 곁에서 결코 내보낼 수 없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비록 혼자의 슬픈 죽음이지만 수경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교육적인 폭력과 공포 분위기에 대한 항거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탄압에 대한 중지를 외침으로서 친구들이,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당하게 될 "학생이 다닐 만한 학교가 되지 못하는"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자기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꽃다운 나이에 떨어져 간 어린 제자의 넋 앞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으며, 수경이의 죽음을 결코 왜곡시키거나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고 있다.

6월 5일, 서진교 교사로부터 무지막지한 폭언과 구타를 당하고, 거의 실신하다시피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놓고 죽음을 결심하면서 유서와 편지를 써놓고, 한 시간 반 이상이나 걸리는 어두운 경산 영대 캠퍼스까지 가면서 수경이가 겪어야 했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무서운 시간들을 죽음과 싸우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우리 모두는 그

의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왜곡된 언론보도를 뛰어넘고 학교에서 퍼뜨리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왜곡(성적 비관 자살로 몰고 가려는)에 분노하면서 진실과 진상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수경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진교 교사의 보복적인 성격이 짙은 폭력이며, 크게는 학교장의 학생회에 대한 탄압이다. 작년부터 대의원이나 학생회 간부들에게 참기 어려운 폭언과 협박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자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면서 경화여고에서도 활동적인 학생회 간부에 대해 문제학생이니 빨갱이니 하는 폭언과 협박으로 끈질기게 괴롭히고 일상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수경이의 죽음은 학교에서의 공포 분위기와 폭언, 폭력, 그리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탄압이 불러온 것이며, 이에 대한 처절한 항거의 몸짓이다. 그럼에도 학교와 시교위는 수경이의 죽음을 축소하고 단순한 학교생활 비관, 성적비관으로 몰고 가서 그를 두 번 죽이려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의 뜻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를 허용치 않았고, 친구를 마지막으로 추모하려는 수경이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갸륵한 뜻을 기만하고, 차 앞에 드러 눕는 아이들을, 교사들을 동원하여 끌어내면서 우리 수경이를 머나먼 곳으로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것이 어찌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이러고도 학생들 앞에 교육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커다란 인내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장과 반성할 줄 모르는 교사에게 더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경이를 죽음으로 몰고간 교사와 학교장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퇴진해 주는 것이 본인과 학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다행한 일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들이 마지막으로 교육자의 양심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0. 6. 8.

경화여자중고등학교 해직교사 일동

□ 성명서

김수경 학생의 마지막 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6월 11일, 김수경 학생의 마지막으로 쓴 유서가 작년 담임이었던 해직교사 최진열 선생의 집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어린 제자의 구구절절한 아픔이 담긴 유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눈물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경이의 죽음을 두고 그의 죽음의 참담한 의미와 진실을 왜곡시켜 온 학교 측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음모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또 한편 사건의 진상을 왜곡보도해 온 일부언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왔으나, 이제 그가 죽음을 앞에 둔 바로 그 시각에 써서 보낸 유서를 보면서 사건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수경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에서 보듯이, 결국 참교육이 실현될 수 없는 척박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선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권리이며 인간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을 빌미로 학생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참으로 가증스런 만행으로 규탄되어 마땅하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온 학생 탄압이 극에 달하였고 참교육을 받을 권리는 박탈되어 왔으며, 이는 학생회 및 학생 자율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체화되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단순한 한 어린 학생의 죽음이 아니라, 문교부, 시교위가 주도하고 학교장과 비양심적인 일부교사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학생탄압 음모가 학생의 저항과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해진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수경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1. 수경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1차적인 책임자인 손남규 교장은 학생탄압과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2.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서진교 교사는 수경이의 장례 이후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부정하고 수경이를 왜곡시켜 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3. 문교부와 시교위는 학생회와 학생활동을 탄압하고 혹은 이를 방조해 옴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와 같은 사태로까지 몰고 온 책임을 지고 즉각 이를 해결하고 이후 학생회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1990. 6.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고 김수경학생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살인적 폭력교육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우리의 딸이 죽어갔다. 한 마디로 비인간화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해 평소에 개탄과 우려를 금치 못했던 우리는, 고 김수경양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다시 한번 비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한창 피어나는 나이에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받은 압력에 못 견딘 여고생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린다는 사실에 대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들에겐 결코 남의 일일 수가 없다.

오늘의 교육현실로 보아 전국 어느 곳의 학교이건 어느 가정의 자식이건 이런 불행한 일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개연성이 바로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경이가 남긴 유서를 한구절 한구절 읽어 내려가는 우리의 손이 자꾸만 떨리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더우기 이번 사건은 전교조를 지지했다는 것 때문에 어린 학생을 끊임없이 탄압하여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다는 것에 우리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소한 교육자라면 설사 전교조와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수경이와 같은 학생들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학생이니, 빨갱이니 하는 폭언과 위협, 감시를 학생지도라는 이름 아래 자행해 왔다면 수경이가 남긴 말대로 그건 이미 학교가 아니다.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다면 이 지경까지 만들었단 말인

가?

한 어린 학생을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한 교육풍토와 해당학교의 비교육적이며, 비인간적인 학생지도 방법, 그리고 투신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체육교사(서진교)의 모욕적인 학생지도 방법과 체벌행위가 우리를 분노에 떨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한두 교사의 잘못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며, 지금의 교육모순이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책임자들은 침묵으로 이 사건을 외면하려 들지 말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 하루 빨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제2, 제3의 김수경 사건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벌써 또 하나의 연쇄적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여고1년 김미경양이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중상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는 퇴학, 정학 등의 강경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학부모들은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문교부와 시교위는 무책임한 자세를 반성하고 반교육적 교육관료와 교육자를 즉각 처벌하라!
2. 모든 교육 책임자들은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고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3. 학교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가라!
4. 학생을 죽음으로 내 몬 폭력교사 서진교는 교단에서 영원히 떠나라!

1990.6.2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화 학우 여러분!

"우리 학교는 학생이 다닐 만한 학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

6월 5일 오후 11시경 3학년 친구 수경이의 죽음에 분노하며 왜곡된 방송 보도와 언론의 조작으로 꾸며진 학우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이 글을 쓴다.

친구 수경이의 죽음은 단순한 고3병이나 성적비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학생에게 가해진 학교측의 일방적 탄압과 폭언, 폭력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의 명랑한 성격과 폭 넓은 교우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는가?

6월 5일 5시경 친구 소연이와 함께 교문 앞 문구사에 나갔다가 교문을 들어오던 중 체육 선생님께 부르셨으나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체육실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책으로 머리 등을 내리치는 등 부당한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결과 평소 몸이 약한 소연이는 30분간 의식을 잃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체육실 앞을 실내화 차림으로 지나던 학생이 그들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들에게만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다만 이 일은 결정적인 계기이다.

수경이에게 가해진 계속된 학교의 탄압은 2학년 때 해직되신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학교측의 과민한 반응이다.

비단 이런 탄압들은 수경이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주적 학생회 간부에게 행해졌다. 수경이는 여태껏 학교에서 받아 온

압박과 불만에 유서를 남기고 다음날 새벽 경산 영대에서 싸늘한 몸으로 발견되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나의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는 수경이의 마지막 한 마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수경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둘째. 학교장의 공개사과
세째. 폭력 교사의 퇴진
우리는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경 화 여 자 고 등 학 교 총 학 생 회

□ 성명서

수경이의 죽음은 진상규명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에는 얼굴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수경이는 자살을 기도하고 동맥을 끊은 흔적이 있다.
운동권 아이들은 원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다.
원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모 여선생이 2학년 5반과 10반 등에서 한 말)
들어 오는 것 한 방 때리고 체육실에 들어가 한 방 때린 것 뿐이다.

수경이는 자신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수경이의 죽음은 '성격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학생이 교사의 처벌에 반발하여 저지른 우발적 사고'로 몰리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8일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던 경화여고 동문들은 서 교사의 반 아이들로 부터 "서 교사는 수경이 언니를 심하게 때린 것이 아니다." "그 언니가 원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재학생들의 다양한 주장을 수집하던 중, 수경이에 대한 인신 공격적 차원의 소문이 떠돌고 있으며 '오히려 서 교사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는 수경이를 두 번 죽일 수 없다.
얼굴 없는 소문만 믿고 '평소 문제가 있던 학생의 충동적 반발'로 이 사건을 매듭지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전에 동맥을 끊은 흔적이 있다는 등의 악성 루머까지 나돌고 있음을 볼 때, 수경이가 남긴 유서의 "운동권(?)으로 찍히면 끝까지 학교 눈치보

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현재 떠도는 소문들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함을 주장한다.

학교는 8일, 3학년들만 모인 강당에서 '서 교사의 사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조차 흐려지고 있는 지금,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은 지나치게 때 이른 결론이 아닌가? 더구나 서 교사의 사과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수경이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심하게 처벌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 한 방 때리고 체육실에 들어가 한 방 때린 것 뿐이다."는 등 그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변명조로 일관되었다.

우리는 모교를 졸업한 선배들로서 모교의 후배들이 보다 인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희망한다. 다시는 수경이와 같은 학생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이유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 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전교생, 동문회, 그리고 수경이의 부모님이 다 모인 곳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한다. 우리는 수경이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 가운데서 진실을 찾기를 희망하며, 그것이 수경이가 우려했던 '자신의 죽음이 왜곡되는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5개 대학 동문연합 건설준비위원회

□ 성명서

학교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민주적인 장이 되길 요구한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지난 5일 밤 영남대에서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면 자랑스러운 딸이 될께요."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수경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 무엇이 수경이를 그리도 멀고 낯선 곳까지 가서 죽음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지난 해 여름은 참 뜨거웠습니다. 특히 경화여고에서는, 더 이상은 오염된 교육현장에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며 싸우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우리는 죄 없는 선생님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탄압과 비난에도 강경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참교육을 행하려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 당하고 선생님들은 교단을 떠나야 했으며 그동안 선생님들과 우리가 눈물과 노력으로 이뤄놓은 '강제적 자율학습·보충수업 폐지', '월중·휴가 중 고사 폐지', '학생회비 내역 공개'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학교는 다시 교사들에게는 노예교사로서의 맹종만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는 과중한 시험과 보충수업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계속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자주적인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억압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던 몇몇 학생들은 소위 '찍힌' 학생이 되어 담임에게서, 수업시간 외에도 계속 눈치를 받아 왔으며 심지어는 "빨갱이년"이라는 등 심한 욕

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비단 우리 경화여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난해 교사의 해직을 반대하며 싸웠던 많은 학생들에게도 학교측으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옹졸하고 비열한 탄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사사건건 이런 식의 비난을 받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부담과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과중한 탄압과 비난을 받는 현실을 묵과하고 계속 방치해 둔다면 또 다른 수경이가 생기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수경이의 죽음이 단지 학교측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것에 울분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학교가 정신을 차린다."라고 농담으로도 늘 말했듯이, 수경이는 차라리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학교에서 고통 받고 혼자 앓는 또다른 자신이 더 이상 없게 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경이가 "내 죽음이 왜곡되지 말았음……" 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수경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똑똑히 들어야만 합니다. 학생회 인권을 유린하고 이유 없이 감정대로 폭력을 행한 교사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회를 탄압하고 살벌하게 학생들을 옭아매는 학교를 방치하고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교장은 더 이상 학교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경이가 죽음으로써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학생들에게 침묵과 맹종만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자주적 권리를 무시하는 교장과 이에 부응해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생들에게 정신적 압박감을 불어넣은 교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중되는 소외와 고통을 방관해 온 교사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민주적인 장이 되어야 합니다.

참교육을 열망하고 후배의 죽음을 애도하는 경화여고 졸업생 일동

김수경의 죽음을 추도하며

김수경 후배의 죽음을 보도로 접하고부터 경화여고를 졸업한 선배로서 그 죽음의 원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한 교사의 구타로 인해 일시적 충동으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가 계속되어지던 학생회탄압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학 경화동문(이하 재경경화동문)에서는 학생회 탄압의 사례를 들어 이의 부당함을 밝히며 앞으로 학생회가 자치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먼저 학생회의 학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도교사가 아니라 자문교사의 역할로 바꾸어야 하며, 또 대의원회의 주제를 사전 검열하는 비민주적 처사를 없애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학교측이 개입하여, 후보를 내세워서 실제로 "연설문 작성을 도와 주겠다."는 편파성을 보인 것과 2학년 후보에게 학교측에서 옹호하는 후보의 당선을 부탁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선거 때에 유언비어가 날포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없었음을 볼 때, 올바른 학교운영을 위해 이제는 학생회 자체에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학교 내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특히 학생회비의 문제도 학생회에 의해 직접 운영되어 질 수 있다.

두번째로 현재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들의 탄압(위협,폭언,폭력)이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김수경의 죽음 또한 그 탄압이 축적된

결과라 하겠다. 이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진상에 대한 것에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교내에서 학생들의 의견분리가 조장되어 경화인이 흩어지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학생회 탄압과 혼란한 학교상황에 대해 학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학생회 탄압이나 학생 개개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재경동문회에서는 타대학 동문회와 함께 김수경 추모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며 학생회 탄압에 대해 학교측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재경동문 일동은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로서 모교가 보다 인간적이고 해맑은 웃음이 넘쳐나는 요람이 되도록 굳게 연대하여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0.7.9

서 울 지 역　경 화　동 문 회

1990년 6월 5일의 죽음
- 누가 수경이를 죽게 만들었는가

1. 수경이가 죽기까지

지난 1990년 6월 5일 화요일, 친구와 함께 청소 시간에 교문 밖을 나서다가 그 학교 체육교사인 서진교 교사에게 붙들려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폭행을 당한 한 학생이 그 학교 학생회장인 차은남 학생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또 자신의 죽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작년 담임 선생님이자 해직되셨던 최진열 교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띄운 후 그 먼 영남대학교 인문관 건물 4층에서 19세, 꽃다운 젊음을 먼먼 하늘 끝으로 영영 날려 보내고 말았다.

그날 밤 11시 20분경 시신이 발견되고, 그 학생이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총무부장인 김수경이란 학생임이 밝혀지고 새벽 3시경 사망 연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시교육위원회 장학사, 사복형사들 등이 부랴부랴 영안실을 찾아왔다. 어느 체육교사의 비인간적 체벌과 그런 체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학교의 비인간적인 교육과 탄압으로 스러져 간 한 학생의 죽음이 널리 퍼져 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그들은 즉각 김수경 학생의 두번째 죽음을 준비해 나갔다.

2. 수경이가 죽고 나서

"성적비관이다."
"딴 아이들과 똑같은 체벌이었다."
"교문에서 한 대 때리고, 체육실에서 한 대 때린 것 뿐이다."
"그 녀석이 반항했다."

"그 앤 원래 반항기가 많은 애였다."
"그 앤 동맥을 끊은 자국이 있고, 평소에도 자살이란 말을 많이 했다."
"그앤 원래 성격이상자였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
"사과 차원에서 마무리 짓자."
"학교 꼴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김수경 학생의 제2의 죽음은 "내 죽음이 왜곡되지나 말았음……."하던 유서의 잉크빛이 채 다 바래지기도 전에 이렇게 철저히 시작되었던 것이다.

학교측은 김수경 학생의 부모님이 공립학교 교사이고 외삼촌이 정보과 형사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 학교 내의 분향소 설치를 막았고, 추모제를 막았고, 위령제를 막았고, 심지어 영구차의 학내 진입조차 꺼려했다. 학생회장을 하루 종일 교장실에 감금시키고, 대의원회를 막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회유하고 기만하려 했다. 자식 잃은 부모님의 입을 틀어막고, 학생회장을 감금함으로 인해 경화여고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파묻히게 되었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녹초가 되었다.

3. 누가 수경이를 죽였는가

다행히 11일경에 수경양의 작년 담임이었던 최진열 교사에게 띄웠던 편지가 도착하였고, 그 편지로 인해 그 동안의 학교측의 총력을 다한 왜곡 선전과 변명들이 모두 수경이를 두 번 죽이는 어리석은 몸부림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전교조를 지지했고, 선생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학생이 학교 측의 끊임없는 감시와 탄압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고, 또 얼마나 절망해왔는가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죽음을 결심하고서도 끝까지 선생님을 사랑했고, 학생회를 걱정했던 생전의 그 학생의 열정과 다정다감함 또한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 한 통의 편지로써 우리는, 우리의 수경이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친구들의 고통에 힘을 주고, 같이 고민해 주었던 우리 수경이가 성격이상자요, 반항아요, 빨갱이라고 학생들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했던 자들이 바로 6월5일의 그 죽음의 장본인들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들뿐만 아니다. 근본적으로 전교조를 교단에서 추방시키려 하는 이 나라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그 정책수행에 신명을 다 바치는 비인간적, 비양심적 교육관료들의 작태가 낳은 이 땅의 암담한 교육현실, 학교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운동권·빨갱이'가 되어 버리는, 조금만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해도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별의별 규정들, 규칙들, 이미 교육적 선도 차원을 넘어선 감정적이고 야만적 탄압(수많은 협박,위협,자질구레한 체벌 등)으로 인하여 눈 감고,귀 막고,입 꿰멘 채 오로지 대학을 가야 하는,대학이 아니면 인생낙오자가 되는 이 타협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수경이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4. 우리의 수경이는 죽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운동권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로 끊임없이 수경이처럼 학교 일에 헌신적이고 열성인 학생들을 괴롭혀 왔고, 또 끊임없이 일반 학생들과 분리시켜 왔다.

단지 경화여고뿐만이 아닌, 대구 시내 전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들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수경이의 죽음이 단지 한 고통 받던 여고생의 자살만으론 끝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수경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제2, 제3의 수경이가 고통 받고 있었고 바로 며칠 후에 또 한 학생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 했던 것이다.

학생회비를 학생회에서 관리하겠다는 학생회장을 두들겨 패고, 학교의 비리를 밝히려는 학생회 임원들을 징계하는 등 학생회 탄압과,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도 모자라 사사건건 트집잡히고 꾸중 듣고 폭행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수경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우리는 수경이의 죽으을 바로 알고 이해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수경이가 죽지 않게 끊임없이 그의 죽음을 바로 알리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수경이의 죽음과 같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막기 위해 우리 주위의 고통 받는 친구들을 서로 일으켜 세워 주고, 함께 고민해 주

어야 한다. 진정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다시는 수경이와 같이 아파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단 한사람도 생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수경이는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학교현실이 바로 잡혀질 그날까지 수경이의 넋은 우리들 가슴 속에 횃불로 타오를 것이다.

수경이의 죽음에 분노하는 경상고등학교 학생들.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 정관(안)

제1조(명칭) 이 회는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고 김수경 열사의 남긴 뜻을 널리 펴고, 이 땅에 교육민주화 실현과 학생의 자주적인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김수경 열사가 남긴 뜻을 널리 펴는 사업
2.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
3. 학생의 자주적인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5조(회원) 1. 이 회의 회원은 위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으로 한다.
2.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사무국, 운영위원회)
1. 이 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 회의 사업을 실무집행할 사무국장과 출판홍보부장, 대외사업부장 등을 두며 기타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더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사무국장, 각 부서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로 하며, 이 회의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재정) 이 회는 회비, 성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9조(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추모사업회의 결성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제1회 김수경 참교육 문예상 작품모집

김수경 열사의 뜻을 기리고
그 유지를 널리 펴기 위해 결성된 추모사업회에서는
그 첫 사업의 하나로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널리 뿌리 내리는
문예작품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참교육 문예상은,
학생회 활동 사례(실패 사례도 포함)나,
동아리 활동의 성과로 얻은 교육현실을 다룬 문학 · 예술작품,
개인적인 고민과 노력을 다룬 작품 등
모든 부문에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응 · 모 · 방 · 법

1. **대상**: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2. **부문**: 교육현실을 그려낸 시, 동시, 소설, 수필, 희곡, 수기, 콩트, 단편 · 중편 · 장편소설, 만화, 평론, 창작곡, 미술품 등 일체의 문예작품과, 학생회 활동의 갈 길을 제시하는 글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3. **분량(크기)**: 제한이 없으며 여러 명의 공동작품도 좋습니다.

4. **원고마감**: 1994년 4월 30일까지

5. **보낼 곳**
대구시직할시 남구 대명 7동 1891-2 (4층)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 626-9168/622-3835)

6. **심사와 시상**
초 · 중 ·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추모사업회」에서 위촉한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며, 부문과 상관없이 당선작과 우수작을 여러 편 뽑아 소정의 부상과 함께 시상합니다. 또한 작품이 모아지면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도 있습니다.

7. **기타**
겉봉투에 '김수경 참교육 문예상 응모작품'이라 표시하시기 바라며 원고 앞면 혹은 뒷면에 학교, 나이, 성별, 주소, 전화, 이름 등을 밝혀주십시오. 공동작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에 동아리의 이름 등을 함께 써 주십시오.

※원고의 반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 수 경 열 사 추 모 사 업 회
☎ 053)626-9168 · 622-3835

추모사업회 기금 및 회원 모집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에서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을 모집합니다. 학생, 교사, 일반인 누구든 고인의 뜻을 널리 펴는 데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참여해 주십시오. 작은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아진 기금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대구은행 072 - 07 - 272959 - 001 최진열
농　　협 710 - 02 - 122414 최진열

김수경 열사 추모집
저 들판 가득 고개 는 들풀처럼

1993년 6월 10일 인쇄
1993년 6월 13일 발행

발행인 / 최진열
편집인 / 배창환
발행처 / 김수경 추모 사업회
인쇄처 / 도서출판 새론불
☎053)252-7738

● 값 3,500원